

주체90(2001)년

6.15주간

6.15Weekly

제15호 (9월 28일~10월 4일)

특집1 반북대결책동

특집2 반조선일보

노작 -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발췌)

≪통일여명≫, ≪6.15주간≫,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집단 동지들에게 - 한민전

≪두 개 전선≫과 ≪하나의 전선≫ - 공개질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민족민주전선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발족선언문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15호 (9.28~10.4)

3 노작 -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발췌)

5 세기와 더불어 - 새 무장력의 탄생

8 조국통일의 구성 - 위인의 도량

특집1 반북대결책동

9 군당국이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 ≪부시방한 취소됐어도 투쟁은 계속될 것≫ -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
11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을 반대하자
12 ≪자위대법≫개정의 목적은 해외침략을 단행하기 위한 것 - 로동신문
12 일본의 군국화와 핵무장화책동 반대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다 - 조선반핵평화위 대변인
13 미국은 북남대화에 또다시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 조선중앙통신 론평
13 국제원자력기구는 공정해야 한다 - 조선중앙통신 론평

특집 2 반조선일보

14 극우보수세력들과의 전면전을 벌이자
16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를 규탄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영화인회의
17 월간조선 10월호 판매금지 결정
17 민주노총 ≪조선일보 506부 끊었다≫ - 전국 동시다발 조선일보 규탄집회
18 ≪8월엔 강정구, 9월엔 김동춘이냐?≫ - [긴급기자회견] ≪조중동은 이성 찾길≫

한국민족민주전선

20 ≪통일여명≫, ≪6.15주간≫,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집단 동지들에게
20 이남의 모든 애국투사들에게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21 ≪두 개 전선≫과 ≪하나의 전선≫ - 공개질의
24 진보정당 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

615공동선언 실현투쟁

26 한국에서 가칭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26 불교계, 통일염원 순례행사 가져
27 ≪북한어린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 구로초등학교내에 ≪한마음 통일터≫ 운영
27 ≪2001 비무장지대 평화촌≫ 10월 27일 개막
28 ≪코리아 평화와 통일 위한 국제 여성연대모임≫ 이 카나다 토론토에서 열려
29 기장 전북지역 4개 노회 통일, 평화를 위한 연합 기도회

주한미군 철수

30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유지비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해마다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1 ≪무등산에 뿌려진 세균, T-2독소≫ - 브라이언 윌슨 씨, ≪민족21≫ 기고문에서 주장
32 ≪무기도입은 육 해 공군간의 나눠먹기식 흥정대상이 아니다≫ - 평통사, 8차 월례집회
33 미국의 전쟁놀음에 휘말리는 정부의 비전투요원 파병을 반대한다 - 전국연합
34 전쟁반대 전국 553개 단체 공동성명발표

반통일세력단죄규탄

37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2) -통일의 훼방꾼 이회창
38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3) -친미사대부 이회창
39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4) -부도덕과 부정비리의 능수 이회창
41 한국판 메카시즘소동 - 재야언론인 김기성씨의 글

국가보안법 철폐

42 검찰이 창원대 총학생회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43 2001 민족통일대축전 구속자 석방기금 마련 통일연대 후원의 밤 및 후원주점 보고
44 민족동국 대의원 불법연행과 관련한 구국단국 총학생회 규탄성명서
45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남총련 기자회견문
46 9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 8기 충청총련 의장 연행 규탄 성명서
47 공안당국이 충청총련의장을 불법 연행한 것에 대한 대전충남통일연대 성명서
48 연행한 한총련 대의원을 석방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민족고대 총학생회)

통일전선

49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민족민주전선
51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발족선언문

연단

52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돼야
53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무엇을 노리는가
54 정말 좋은 투쟁이다

대담

55 위인칭송 / 57 이회창은 왜 남북공동선언 시비하나

58 계획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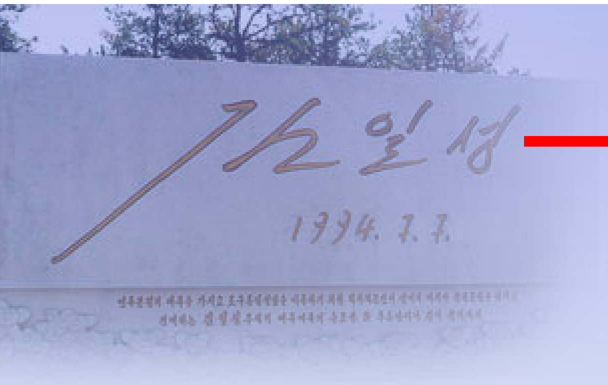
60 시 - 휘날려라 통일기여

61 뉴스 - 주체90(2001)년 9월 23일 ~ 29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발췌)

국제의회동맹 제85차총회 개막회의에서 한 연설
주체80(1991)년 4월 29일



오늘 우리 인민은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치철학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고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입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일심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들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성격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완전히 평등한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면서 건전하고 안정된 물질문화생활을 고르롭게 누리고 있으며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다같이 발전해 나가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위업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인간의 리상사회를 끝까지 건설해 나갈것입니다.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국제정치에서 해결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조선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대대로 한강토우에서 살아 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현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 져 살아야 할 그 어떤 내적요인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이 아니며 우리 인민은 장기간에 걸친 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파시즘을 격파하는데 이바지한 인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전후에 조선민족의 의사에 배치되게 북과 남으로 갈라 지게 되였으며 민족의 분렬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을뿐아니라 아세아지역에서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세를 조성하는 하나의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아세아와 세계평화위업의 견지에서 보나 하루빨리 해결되여야 할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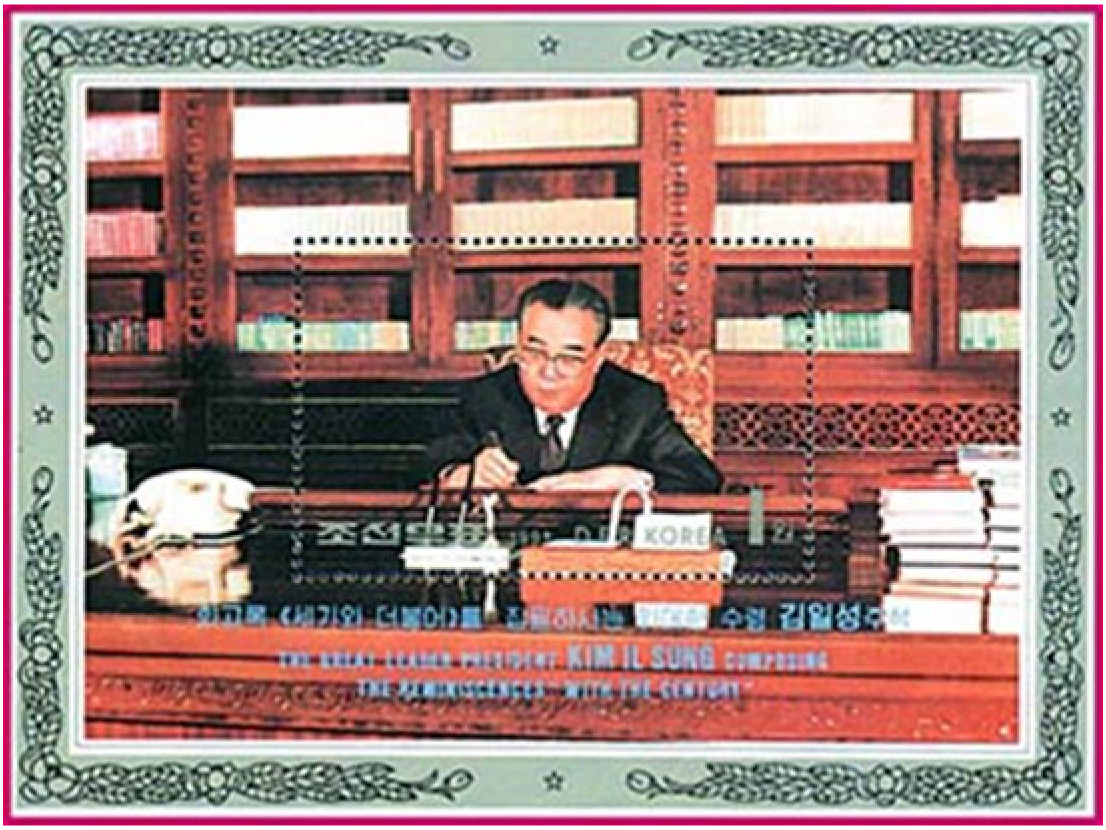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구현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이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주적으로 발전하려는 조선민족의 념원과 자주, 평화의 시대적요구에 부합되며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이미 분렬의 장벽을 넘어 하나로 융합되였으며 조선은 하나이라는 민족적신념은 꺾을수 없는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의 앙양된 통일기운에 맞게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오늘의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 인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할수 없으며 민족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국제적문제가 옳게 해결되도록 협력해 나서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유관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 국회와 정치인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이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5. 새 무장력의 탄생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5장



…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할 수 없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지 않고서는 대오를 확대할 수 없었고 공개적인 군사활동도 할 수 없었다.

부대는 조직했지만 합법화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모두 뒤골방에 배겨있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에 나타나야 빛을 보겠는데 나타날 수 없었다. 군복도 없이 모두 사복을 입고 남의 집 뒤골방에서 모젤이나 주무르며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항일을 하겠는가고 통탄만 하였다. 그것도 조선부락에나 숨어있을 뿐 다른 데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밤에만 몇 사람씩 비밀리에 나 다니는 형편이었다.

초기에 우리가 유격대를 비밀유격대라고 부른 리유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그때 일본군대들 뿐 아니라 구국군과 만주군 패잔병까지도 피해다녀야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반동분자들도 경계하면서 다니었다. 합법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막 쏘고 행패질을 하는 것이어서 정말 문제거리었다. 연길, 화룡, 왕청, 훈춘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집만 골라다닐 수도 없었다. 본래 어렵게 살던 사람들인데 몇십명씩 무리를 지어가서 다 털어먹고 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 그것도 야단이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여 대낮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군중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선전도 해야 일이 되고 싸울 맛도 나련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리는 모여앉기만 하면 유격대를 어떻게 합법화하겠는가.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풀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제일 심각하게 론의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상층부가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있고 자주, 자본가, 관료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군대인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계급적 원칙의



포기이고 타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는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그들은 구국군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동맹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적대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실력으로 눌러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을 실로 위험천만한 주장이였다. 우리는 구국군이 비록 여러 가지 제한성은 있어도 투쟁목적과 처지의 공통성으로부터 항일전쟁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자로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련합전선까지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리념이 다른 두 무장력의 련합전선에 대한 문제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론쟁을 불러일으켰다.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동만특위에서는 일찍부터 왕덕림부대에 주의를 돌리고 7-8명의 우수한 공산당원들을 파견하여 구국군과의 공작을 하게 하였다. 우리도 리광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구국군부대들에 파견하였다. 나는 통신원들을 통하여 동산호부대에 파견된 리광이 구국군공작에 부심하고 있는 정형을 여러번 보고받았다.

구국군의 행패가 심해지자 우리 동무들은 련합전선은 공상이나 우리도 이제는 맞불질을 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설복시켜놓았다. 구국군을 적으로 삼고 그들에게 1대1로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반일이라는 대의와 도리에도 맞지않고 청소한 우리 유격대를 자멸에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분별한 짓이기도 하였다. 간도는 물론, 만주전역의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이 구국군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각 현에 있는 유격대라고 해야 얼마 안되었다. 한개현에 몇십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구국군한테 잡히기만 하면 모조리 죽는 판이니 부대를 늘일 욕심이 있어도 도무지 늘일 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나는 우리 유격대가 당분간 우사령부대에 들어가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사령부대에 들어가면 구국군의 간판을 가지게 되니 피해를 입을 념려가 없고 무기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향만 잘 주면 그들을 공산주의화하여 안전한 동맹자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동무들의 토론에 붙이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조직의 본부가 있는 소사하 김정룡의 집에서 하루종일 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을 지금은 소사하회의라고 한다. 그 회의가 아주 격렬하였다. 구국군부대안에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걸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목이 아프게 론쟁을 하였다. 애연가들은 물론, 담배를 피울 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마라초를 꼬나들고 쉴새없이 연기를 뿜어대는 바람에 눈이 쓰리고 숨이 막혀서 혼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결국 별동대에 관한 나의 착상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구국군과의 담판을 위하여 우사령부대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적임자로 내가 선발되었다. 동무들이 나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당시 우리한테는 군사외교를 해본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를 대표로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론의되였다. 대표는 선출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접근이나 시키겠는지, 정작 담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내대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는지 그리고 수틀리면 우리 대표를 사살하지는 않겠는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대표로는 이 모든 정황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강조되였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 우사령과 마주앉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발해야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박훈, 김일룡, 호진민 뿐이였다. 김일룡은 나이가 나보다 10여살이 이상되는 사람이였지만 중국말을 잘 몰랐다. 그 나머지는 다 조아범처럼 학교를 갓 나온 18-20살내기들이였다.

나는 동무들한테 나를 보내줄 것을 제기하였다.

동무들은 그 제의를 반대하였다. 성주동무는 대장인데 우사령이 공산당이라고 잡아제끼면 곤란하다. 그러니 진한장이나 조아범이나 호진민같은 중국동무들가운데서 누구든지 외교에 능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우사령이 내가 가면 무엇때문에 죽이겠는가고 물었다. 동무들은 그것 어떻게 알겠는가. 들어갔다고 ≪꼬리방즈≫하고 죽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너라고 못죽일게 뭔가, 왕청 관부대사건때문에 요즈음은 구국군이 조선청년들이라면 더 눈을 밝힌다는데 너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관부대사건이란 왕청에 있는 리광동무의 비밀유격대가 관부대란 반일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격대의 활동에 더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왕청에서 온 통신원은 자기네 고장에서 관부대사건이 있을 다음 그 보복으로 여러 명의 유격대원들이 구국군에 붙잡혀 총살당하였다고 하였다. 김책동무가 북만에서 산림대에 붙잡혀 죽을 뻔한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 나는 그냥 내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내가 그렇게 고집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외교술을 가지고 있거나 우사령을 굽혀낼 특별한 처방이라고 있어서가 아니였다. 유격대의 존망이 우사령과의 담판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패도 그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달려있다는 것과 구국군을 동맹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동만땅에서 유격전은 고사하고 문전출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었기 대문이였다.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조선의 남아로서 살 보람도 없고 살아야 할 리유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혁명을 하지 못한다. 내가 중국말을 잘하고 청년운동시기에 풍랑도 여러차례 겪어본 것만큼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사령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한다고 동무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박훈, 진한장, 호진민 그밖의 중국청년 한명을 더 데리고 우사령을 찾아 떠났다. 아무런 신변안전 담보도 없는 모험의 길이였다. 상대측의 사령부는 량강구에 자리잡고 있었다. 구국군이 우리더러 어디에서 왔는가고 물으면 우리는 안도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길림에서 왔다고 대답하기로 약속하였다. 구국군들 앞에서 유격대의 주둔지역인 동만의 지명을 대는 것은



재미가 없었다. 우리는 대사하로 가는 길에서 우사령부대와 맞닥들였다. 수백명의 대오가 ≪삼국지≫에 나오듯이 ≪우사령≫이라고 쓴 기발을 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행군해오고 있었다. 우사령부대가 남호두에서 일본군대를 소탕하고 기관총까지 로획한 후여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날 때였다.

≪피하지 않소?≫

포진민이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니, 맞받아나가자구!≫하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머지 네 사람도 나의 량옆에 가지런히 서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나갔다. 구국군은 우리를 보자 ≪꼬리빵즈, 오라!≫하고 호령하였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도 당신들처럼 항일을 하는데 왜 붙잡으려하는가고 중국말로 항의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사람이 아닌가고 되물었다. 나는 떳떳하게 조선사람이라고 대답한 다음 진한장, 호진민 동무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중국사람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히 상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네 사령한테로 찾아가는 길이요. 우리를 사령한테로 안내하시오!≫

내가 이렇게 위엄을 풍기며 요구하자 그들은 좀 수그러들면서 자기네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얼마쯤 갔을 때 구동북군방교차림의 지휘관이 점심식사지령을 내리고 우리를 어떤 농가에 구금하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길림 육문중학교 시절의 나의 스승이었던 류본초선생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 류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에서 얼마동안 한문을 가르친 적이 있고 그 후 문광중학교와 돈화중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을 사람이었다. 그는 상월선생과도 친교가 깊었고 진한장과도 잘 아는 사이었다. 선생이 호인이고 지식이 해박한데다 좋은 책들도 많이 알선해주고 훌륭한 시들을 지어 학생들앞에서 즐겨 읊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그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와 진한장은 류본초선생을 알아본 순간 탄성을 내지르며 선생의 앞으로 뛰어갔다. 역경에 처했을 때 선생을 만나니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류본초선생도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방 질문을 던지였다. 너 김성주, 어째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왔느냐? 어데로 가다가 이렇게 붙잡혔느냐? 내가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생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나도 여기서 점심을 함께 먹겠다. 잘 차려오라.≫하고 큰 소리로 지시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일본군대가 만주로 쳐들어오자 교단을 떠나 우사령부대에 들어와 참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류본초선생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군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자니 속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자기네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우리가 그 의견을 동의하고나서 우사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그는 량강구에 있던 우사령이 지금 안동성시에 들어가니 자기와 함께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도 조선사람부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야 중국사람들보다 조선사람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일부대에서는 왜 조선사람이 항일을 못하게 자꾸 행패를 부리고 잡아죽입니까?≫

≪아, 그러게 말야. 나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두 그 모양이거든. 공산당이 뭔지두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것들이. 공산당이 일제를 반대하는데 무엇이 나쁜가?≫

류본초선생도 분개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는 됐다. 살길이 나졌다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박훈을 소사하에 보내어 그곳 동무들에게 우리가 무사하다는 것과 우사령부대의 참모장이 우리를 진심으로 후원해주었기 때문에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우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류본초선생을 따라 안동성시로 떠났다. 류본초에게는 전용군마가 한필 있었다. 우리가 선생에게 말을 타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너희들이 걸어가는데 내가 말을 타구 가다니 될말이냐.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성시에 가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줄곧 도보행군을 하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은 거의 모두 팔에 완장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같이 ≪부파스 부요민≫이라는 글이 씌여 있었다. 그것은 죽기를 겁내지 말며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군졸들에게서 풍기는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좌우명은 매우 건전하고 전투적이었다. 그 글이 나에게 우사령과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한가닥의 기대를 품게 하였다.

그날 우리는 류본초선생의 안내로 거침없이 우사령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참모장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우리를 례절있게 맞이하고 대우도 높은 급으로 잘해주었다. 우리모두가 중학교졸업생으로서 연설도 할 줄 알고 격문도 쓸 줄 알고 무기도 다룰 줄 아는 한창나이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내탐하고 자기네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 짐작과 같이 우사령은 정말로 우리를 자기네 부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나보고는 사령부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의 속심은 자기 군대를 만들어 그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인데 사령이 나더러 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하니 나로서는 참으로 난처하였다. 내가 거절하면 우사령이 노염을 탈 것은 분명한 일이었고 류본초선생의 립장이 딱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일이 싱겁게 되기는 하였지만 우사령의 신임만 얻으면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우사령은 몹시 흡족해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부하에게 임명장을 쓰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사령부선전대장으로 되었다. 호진민은 부참모로 되고 진한장은 비서로 임명되었다. 소원밖의 황당한 결과였지만 우리로서는 어차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닥다리였었다. 사실 이 벼락감투가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큰 은을 내었다.

…

위인의 도량

김채옥 / 구국전선 455호 (주체90년 10월 1일)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옷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주체73(1984). 3]

장군님의 도량은 천만자식을 거느린 자애로운 어버이의 인정이며 꺼져가는 생명에도 소생의 숨결을 이어주는 은인의 손길이며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는 스승의 은총이다.

생산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뜻하지 않은 일로 사경에 처했을 때 수십만달러분의 귀한 약을 아낌없이 쓰도록 하시고 헬기를 띄워 유능한 의료진까지 동원하여 기어이 살려내도록 하신 장군님이시다.

여성들에게 산원을 지어줄 바에는 제일 크게 지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당초에 계획했던 침대수 500대를 1500대로 늘려 건설하도록 하신 분도 통이 큰 도량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숭고한 인간애의 웅심깊은 도량을 지니셨기에 장군님께서는 1984년 이남에서 큰 수해를 입었을 때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막대한 양의 구제물자를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었다.

장군님의 도량은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는 대해같이 넓고 넓은 도량이다.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늙은이이건 젊은이이건,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천만사람을 차별없이 두터운 믿음과 사랑으로 안아주고 끝까지 보살펴 주는 한없이 넓은 장군님의 도량이시다.

이 땅에 삶의 닻을 내린 사람이라면 핏줄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한품에 안아주시는 고결한 도량을 지니셨기에 장군님께서는 재북 일본인여성들의 고향방문의 길을 열어주시어 그들의 마음속 소원마저도 풀어주시는 어버이의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고 정치가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 정치가 그릇이 작으면 사람들을 다 담지 못하고 정치가가 도량이 좁으면 대중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간의 관계나 생활에서 너그러운 아량과 포용이 도량이다. 천차만별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도자는 실무능력도 높아야 하지만 도량이 넓어야 한다. 성품은 권력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가깝게 한다는 말이 있다.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에게 있어서 도량은 필수불가결의 성품이며 그것은 정치활동과 방식에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대해같은 넓고 웅심깊은 도량을 지니신 걸출한 위인이시다.

그분의 걸출한 사상과 영도, 덕망은 민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한없이 넓은 도량에 기초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도량은 만사람을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포용하는 숭고한 인간애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민중을 하늘처럼 숭배하는 믿음과 사랑은 장군님의 천품이다.

그분께서 어린 시절에 제사공장 노동자들의 터갈라진 손을 보시고 마음에 걸리시어 어머님더러 손이 트는데 바르는 약을 한자동차 구해달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장군님께서 지니신 민중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열렬하며 도량이 얼마나 크신가를 가슴뜨겁게 안겨주고 있다.

장군님께서 지니신 도량은 민중을 위해 기울이시는 크나큰 노고와 심혈이며 끝없는 배려와 헌신적 사랑이다.

흔히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민중을 위해서는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고, 민중을 위해서는 국고금을 아낌없이 털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이 장군님의 도량이다. 민중을 위해서는 타산을 모르시는 크나큰 도량에 그분의 특이한 계산법이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하늘같은 도량을 지니신 민중의 어버이이시기에 그 품에 안긴 민중모두는 장군님의 한식솔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도량은 온 겨레를 민족공동위업실현에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에서 뜨겁게 표출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중대사이며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대단결이 그처럼 귀중하고 절박한 지상의 과제이고 경륜이기에 장군님의 조국통일의지에는 열화같은 조국애와 민족애로 충만된 크나큰 도량이 뜨겁게 어려 있다.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조국통일을 바란다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이남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와 군장성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한없이 대범한 친화력, 장군님의 도량에 매혹되어 북행길에 오른 이남과 해외의 정치인, 종교인, 기업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동포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온 겨레를 따뜻이 안아주고 민족구성원모두를 보람찬 인생의 길, 참된 애국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넓고넓은 도량을 지니시고 온 민족을 민족대단결의 길, 통일강성대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7천만 겨레의 앞길은 끝없이 창창하다.

특집1

반북대결책동

군당국이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5일 16조 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력증강을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사업 등 15개 신규사업에 452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사업에 2,376억원, 이지스급 구축함 62억원, 차세대 요격무기 851억원, 그리고 공격헬기사업에 319억원 등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외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한반도 전지역에 대한 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사업에 많은 자금을 배정을 한 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의 일환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기 위해서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과 각종 전쟁연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는 해소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북과 마주앉아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대해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속이 다르게 북침을 위한 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좋게 발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기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공과 문민독재시기에도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들이 진행됐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파탄되고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된 것은 통치자들이 미국과 함께 북침을 위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이고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무력을 증강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고 하는 현시점에 와서까지 군 당국이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범죄적 속셈을 만천하에 다시금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열자면 대화상대방을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군 당국이 온 민족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이에 역행하면서 무력증강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선행당국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성을 가지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하며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을 중지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치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만약 군 당국이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린다면 전쟁광신자, 통일의 방해자로써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방한 취소됐어도 투쟁은 계속될 것≫

-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



부시 미 대통령이 다음달로 예정된 방한 일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부시방한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해온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연석회의)≫의 이용규(민중연대) 사무처장은 부시방한이 취소됐어도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규 사무처장은 그 동안 부시방한반대를 위해 준비해왔던 사업들을 폐기가 아닌, 전쟁반대, 전쟁중단, 반미투쟁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사무처장은 내일 오전 중에 300~4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전쟁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0일에는 연석회의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시국선언대회≫를 가질 계획도 밝혔다.

또한 민중연대의 주제준 조직국장은 부시의 갑작스런 방한 취소는 ≪부시가 남한에서 해야 할 일은 무기강매와 한미투자협정이었는데, 미국의 테러 발생 후 방한하지 않아도 한미투자협정과 무기강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상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미국의 발표라고 그 근거를 들었다.

주제준 조직국장은 연석회의의 이후 방향에 대해서 비록 부시가 방한은 하지 않지만 상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석회의는 이름과 방식은 바뀔지라도 그 두 가지 목적(한미투자협정, 무기강매)을 부각시켜 알려내는 투쟁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27일, 28일의 회의를 통해 부시방한 취소와 관련해 이후 방향과 계획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연석회의 전체적인 틀과 방향성은 그 후에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석회의는 26일 낮 12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옆 인도에서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연대집회≫를 개최하고 보복전쟁반대와 함께 이 같은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강병기(전농 사무총장), 이천재(전국연합 공동의장), 정종권(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정책기획실장)씨 등이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정종권 씨는 이번 10월 9일부터 진행될 구로구 보궐선거에서 민생안정과 반미반전의 내용을 기조로 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권 씨는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보복전쟁 지원 반대를 선거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미 제국주의에 의해 우리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과 반미의 목소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보수정당과 정확하게 선을 그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종권 씨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와 유인물 등을 동원해 반미반전을 알려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 중앙에도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을 반대하자



오늘 일본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는데요. ≪에이취-2에이≫로켓을 발사한 것도 하나의 사례라 하겠죠. 우리 청년학생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의 유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을 반대하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애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일본이 ≪에이취-2에이≫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내외에서는 일본이 군사대국화에로 줄달음치기 위한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탄배격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이 문제를 가지고 애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그럼 먼저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김현규 : 네, 그러죠. 최근 일본은 가고시마현의 가네다우주센타에서 ≪에이취-2에이≫로켓을 발사했는데요. 그들은 이것이 우주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즉시 전환될수 있는 일본의 완성된 주력로켓이라고 합니다. 일본당국자들 자신도 이 로켓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수 있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본 방위청 장관은 그 로켓이 북의 미사일에 대응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에서 일본의 ≪에이취-2에이≫로켓발사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주목하고 있어요.

사회자 : 그러고보면 이번 로켓발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김현규 : 그렇죠. 일본은 이번 로켓발사와 관련해서 내외에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우주개발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지만 그건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들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와 같은 군사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에서는 과거침략사를 미화분식하는 역사왜곡행위가 일본당국의 묵인 하에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직자들이 내외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과 같은 군국주의부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자체로 미사일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고 이번 로켓발사를 통해 그것이 실천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이번 로켓발사시험은 일본의 군국화 책동이 정책화돼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애기가 되겠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 북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던 일본이 이번 로켓발사를 진행한 것은 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북의 있지도 않은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해외팽창을 추구하며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목적 밑에 일본의 군국화 책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특히 북을 압살하기 위한 무모한 군사적 대결책동이고 나아가서는 일본이 핵무장화를 실현하고 우주군사화에로 줄달음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처럼 위험한 일본의 군국화 책동이 미국의 비호 하에 추진돼왔다는데 그 엄중성이 있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보겠는데요.

김현규 : 미국이 현재 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라고 고집하며 대북강경정책을 강행하자 일본이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북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군국화책동이 추진돼 왔고 미국의 비호 밑에 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체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을 방관시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예측할 수 없는 극히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 우리 민중에게 어떤 참화가 덮씌워지겠는가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청년학생들은 일본의 군국화 책동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의 재무장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저지파탄시키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러면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는 거예요.

김현규 : 무엇보다도 학생운동단체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의 본질과 위험성, 그 결과를 청년학생들과 국민들 속에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사업을 널리 진행해서 그들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 일제가 아시아에서 맹주노릇을 하며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대죄를 철저히 폭로규탄하며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 과거침략사를 왜곡하고 미화분식하려는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단죄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학생들은 지난 시기 광주학생투쟁과 6.3봉기 등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벌여온 반일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살려 오늘 군사대국화에로 줄달음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자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청년학생들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나갈걸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이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기 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이 임무와 과제를 다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자위대법≫ 개정의 목적은 해외침략을 단행하기 위한 것

로동신문

(평양 9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호 ≪로동신문≫은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전략에 맞게 ≪자위대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 폭로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일본반동들이 이번 미국에 대한 습격사건을 구실로 ≪대미지원≫의 명목으로 ≪자위대법≫개정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교활하고 위험한 책동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주장대로 ≪자위대법≫이 개정되면 ≪자위대≫는 제한된 법률적 구속에서나마 완전히 벗어나 제 마음대로 활개치게 되며 개별적 사람의 명령에 따라 전쟁행동을 벌릴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자위대≫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군사작전행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이 ≪자위대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해외침략을 단행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자위대법≫이 개정되면 일본≪자위대≫는 각종 명목으로 경외의 임의의 장소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일본반동들이 ≪자위대법≫까지 개정하고 그에 따라 ≪자위대≫가 해외군사작전에 뛰여 들게 된다면 그것은 아시아나라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커다란 군사적 위협으로 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거 일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맨 먼저 조선을 침략하고 그를 발판으로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 지배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놀음과 ≪야스구니진쟈≫참배, 과거청산회피는 군국주의침략사상의 발로이며 날로 악랄해지는 재침책동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이번 대미습격사건을 계기로 소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반동들의 행동은 아시아나라들로 하여금 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군사적 재침책동은 세계의 규탄과 배격 속에 그들 스스로의 자멸을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군국화와 핵무장화책동 반대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갈 것이다

조선반핵평화위 대변인

(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일본이 대형운반로케트 ≪h-2a≫발사시험을 진행한것과 관련하여 2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일본반동들이 얼마 전에 대형운반로케트 ≪h-2a≫발사시험을 진행하고 가소롭게도 그것이 그 무슨 ≪우주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로케트는 그 용도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일본의 완성된 주력로케트로서 일본당국자들도 이 로케트가 군사적 목적에 리용될 수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로케트발사시험으로 하여 일본은 핵대국화실현의 무모한 놀음에 전면적으로 뛰여 들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핵대국≫론을 자기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막대한 량의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도기술을 가진 일본이 이제는 대형장거리운반수단까지 갖추고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로골적으로 내달리고 있다.

군국주의야망과 해외팽창책동이 극도에 달한 속에서 진행된 이번 로케트발사시험은 과거의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단 사태가 조성되면 단번에 ≪세계일류급의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진 ≪지배자≫로 등장하여 아시아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려는 일본지배층의 교활하고도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과학연구를 위한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놓고 한사코 ≪미싸일발사≫로 우겨대면서 못되게 논 일본이 로케트를 거리낌 없이 쏘아 대며 군사대국화, 핵무장화에로 줄달음치는 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우리의 그 무슨 ≪위협≫이라는 것이 저들의 군국화, 핵대국화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은 인공위성발사를 중지하고 있는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립장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미싸일 강령은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하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는 세계의 수많은 반전, 반핵평화단체들과 함께 일본의 군국화와 핵무장화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북남대화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외세의 방해로 일시 중단되였던 북남상급회담이 재개되여 주요한 합의들을 이룩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북남상급회담은 앞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화해협력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여 간다면 불원간에 나라의 통일에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강력한 기대를 안겨 주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통일이 북과 남의 대화와 화해협력으로 능히 실현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실현되여야 할 민족사적과업임을 다시 한 번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이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는데서 반드시 새기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선반도문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미국의 태도문제이다.

지난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후 북남관계가 모든 면에서 순조롭게 발전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피 어린 노력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남간의 급속한 화해협력을 가져 온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현행 정부가 출현한 후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부쉬행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 선임행정부시기에 이룩된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합의들을 전면재검토하는 한편 ≪남북대화속도조절≫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북과 남의 평화과정에 제동을 걸도록 남조선 극우익반통일세력들을 암암리에 부추겨 왔다.

미국이 북남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력대적으로 북남 사이의 화해협력분위기와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가 고조될 때마다 부당한 리유로 거기에 장애를 조성하여 왔다.

력사적 교훈은 북남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자면 무엇보다 외세의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조선인민의 통일념원과 의지에 도전하여 또다시 북남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재개되여 좋게 진전되고 있는 북남대화가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에 의해 두 번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면 그 후과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것으로 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공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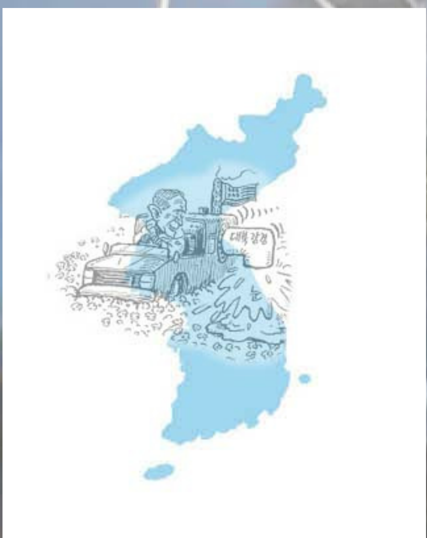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교도통신에 의하면 9월 17일 국제원자력기구 년례회의에서 기구총국장 바라데이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북조선의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을 감시하고 있지만 평양의 핵계획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할수 없다≫고 력설하였는가 하면 일본의 고위관리는 ≪북조선이 사찰에 협력하며 합의문에 따른 자기의 의무를 신속히 전부 리행할것을 호소한다≫느니 하는 주제넘은 소리를 늘어 놓았다.

이것은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미국의 장단에 따라 합의문 불리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보려는 어중이떠중이들의 분별없는 처사로 밖에 달리는 평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업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할 원칙은 중립과 공정성이다.

이것을 떠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방의 주문에 따라 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론의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루차 강조된 문제이지만 조미기본합의문리행 문제는 조미 두 나라간의 문제로서 타방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회의에서 책임을 따지려면 응당히 합의문 리행에서 불성실한 미국의 태도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미 두 나라는 난관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1994년 10월 21일 서로의 ≪핵문제≫를 해결하며 두 나라간의 관계개선을 공약한 구속력 있는 법적 문건인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합의문의 핵심사항은 우리의 핵 동결 대 미국 측의 경수로제공이라는 동시행동조치로 맞물려 진 쌍무관계문제로서 일방의 불리행은 합의문 자체의 운명과 련결되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우려하는 ≪핵의혹≫을 해소하고 합의문의 리행을 위해 그동안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양보를 해왔으며 오늘까지 합의문의 원칙들을 성실히 지켜왔다.

그런데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인 미국은 경수로건설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는 ≪미싸일문제≫요,≪지하핵시설의혹≫이요 하는 정치적 문제들을 들고 의도적으로 건설을 지연시켜 왔으며 결국 합의문을 채택한지 7년이 되여 오는 오늘 경수로대상건설은 기초굴착이나 겨우 시작한 상태에 있다.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성실했다면 경수로건설완공을 약속했던 2003년이 눈앞에 온 지금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가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수준에서 협정리행이 진척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다 외면하고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 핵관련부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론의하기로 되어 있는 사찰문제를 부당하게 들고 나오는 것은 명백히 합의문 리행에 제동을 거는 행위이다.

특히 일본은 아무데서나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대국들의 눈치를 살펴 가며 남을 걸고드는 고약한 악습을 버려야 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을 은닉해 놓고 핵무기탑재용미싸일개발을 다그치고 있는 일본이 그 누구에게 ≪의무리행≫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철면피하기에 앞서 가소로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일본을 비롯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세력들은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이 체질화된 나머지 분별을 잃고 진실과 허위, 중립과 공정성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진정으로 국제적 정의에 충실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극우보수세력들과의 전면전을 벌이자

-학생운동가 최모씨의 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자면 그 길을 가로막아 나서는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해야합니다. 민족의 통일기운이 높아질수록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벌어지는 극우보수세력들의 분열주의적책동으로 해 6.15공동선언이행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선봉에 서서 민족반역배들을 척결하기 위한 전면전을 더욱 힘있게 벌일걸 요청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절박한 요청에 부응하자면 우리 청년학생들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겠는지 학생운동가 최모씨의 글을 통해 새겨봅시다.

가을은 추억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 한다. 붉게 타는 단풍잎사이로 따뜻이 비쳐드는 햇볕에 실려와 우리 열혈청춘들의 가슴에 자긍심을 더해주는 추억은 얼마나 많은가. 2001년 승리자의 기세로 자주로운 새 세기의 진격로를 개척하자는 투쟁호소문을 발표하고 새세기 정초부터 투쟁의 열풍을 휘몰아온 우리 청년학생들은 그 불굴의 기상과 애국의 의지로 자주민주통일운동사에 특기할 공적을 쌓아올렸다. 그러나 사연많은 그 나날들에 대한 회억속에 더욱 강렬히 불타오르는 증오가 있다. 그것은 민족분열주의세력과는 기필코 하루빨리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그 철의 진리이다.

돌이켜보면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가는 속에 올해에도 절승의 금강산을 통일의 메아리로 가득 채우며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아래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의지를 모아세우며 통일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됐다.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이 남과 북, 해외에서 힘차게 전개됐다. 그러나 의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지 않고 통일의 길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분단으로 인한 불행과 아픔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 때문이다. 통일이냐 분열이냐를 가름하는 엄숙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의 민족분열책동에 편승하며 나라와 민족 앞에 죄악의 한을 덧쌓고 있는 극우보수세력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분열주의세력과의 전면전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염원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불타는 지향으로 민족반역배들에 대한 증오를 더욱 가열시켜 극우보수세력들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것이다.

극우보수세력은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가는 추악한 사대매국무리들의 집합체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금 뚜렷이 명시한 민족자주선언이다. 세기가 교체되는 역사적 시점에서 발표된 6.15공동선언에는 외세에 의해 강요당하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용납하지 않으며 외세의존은 망국, 망족의 길임을 더욱 폐부에 새기고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쟁취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사가 총집대성되어 있다.

미국의 민족분열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가 누구든 민족구성원의 한사람이라면 설사 어두운 과거가 있다고 해도 단호하게 탈피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통일실현의 마당에 떨쳐 일어설 것을 더욱 절절히 요청했다. 그러나 사대매국무리들은 민족자주선언인 6.15공동선언이행에 한사코 역행하면서 외세의존에 찌들대로 찌든 민족반역배로서의 정체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보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기 바쁘게 주한미군영구주둔나발을 미칠 듯이 불어대어 민족의 자주합성을 눅잦혀보려 한 것도,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가 우선해야한다는 괴뢰주의 찬양론을 공공연히 유포시킨 것도 극우보수세력들이다.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며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광분하는 미국을 항의와 규탄의 도마 위에 올려놓지는 못할지언정 그에 박수를 쳐주고 안보에 대해 떠들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북침전쟁훈련에 미쳐 날뛴 것도 군부당국자들을 비롯한 이 땅의 보수세력들이였다. 이러한 자들을 그대로 뒤둔다면 6.15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져 우리 민족은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 극우보수세력은 민족의 분열에서 살길을 찾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피를 물로 날뛰는 극악한 분열미치광이들의 집합체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칠천만 겨레의 지향과 의사에 걸맞게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통일이정표이다.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 그 직행로를 따라 통일의 기관차를 힘차게 몰아갈때 통일은 가까운 몇 해 안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격동적인 사변은 분열주의자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국토분단을 영구화하기 위해 그 어떤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자행케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불폐지론을 들고나오며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북퍼주기론과 같은 허구적 논리와 주장을 펼쳐 남북간의 경협을 헐뜯어온 극우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인 정체는 특히 지난 8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통일행사들에 참가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행사에 참가했던 대표들을 친북인사로 몰아붙여 탄압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문지들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8월의 폭양처럼 달아오른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극우보수세력의 책동은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투쟁의 과녁을 더욱 뚜렷이 새기게 한 계기로 되었다.

극우보수세력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권욕과 부귀영화에만 환장이 되어 돌아치는 정치모리배들의 집합체이다. 정치가에게는 현실을 바로볼 줄 아는 안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치적 안목이 어둡고 자질과 능력이 결여된 정치인은 독단주의와 처세술에 매어달리게 되기 마련이다.

지금 이회창일파가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는 이면에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월계관을 써보려는 정략적 목적이 깔려 있다. 이로부터 이회창일파는 민족간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반목과 질시, 대결을 조장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저들의 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낡은 관점과 수법은 새 세기에는 더이상 통할 수 없으며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면 할수록 극우보수세력은 더더욱 고립배격되게 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가는 극우보수세력에게는 앞날이 없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파멸의 문턱에서 최후 발악하는 극우보수세력에게 준엄한 철퇴를 안김으로써 민족반역배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극우보수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몰아와야 한다. 민족분열주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없고 조국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반통일보수우익집단을 반대하는 투쟁이 응당한 높이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몇개 운동단체들의 성명이나 호소문발표, 항의시위만으로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제거할 수 없다. 대중적인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하며 그 불길이 경향 어디서나 타번지게 해야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고발장과 백서발표 등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극우보수세력의 만고대죄를 낱낱이 까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극우보수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이 갖는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극우보수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의감이 강하고 애국에 열렬한 우리 청년학생들이 이 투쟁을 더욱 광범히 벌여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켜야한다. 지난 9월 8일 남총련소속 학생들이 이회창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청에 부응한 의롭고도 바람직한 투쟁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그러한 투쟁을 결의대회를 갖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올바른 투쟁전술을 구사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시비하며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시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안기는 것은 민족반역배들의 책동을 분쇄하는 것과 동시에 그자들의 정체를 밝혀내어 더많은 사람들을 투쟁에로 궐기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9월 10일에 발족된 한총련소속 대학생감시단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대학생감시단은 이회창바로보기운동과 이회창에 대한 제보전화받기운동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극우보수세력의 일거일동을 예의주시하고 사소한 반통일적 행위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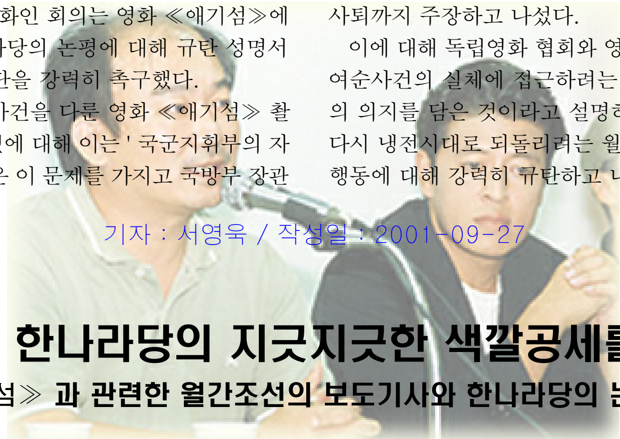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 극우보수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도 결국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려는데 있다. 적극적인 공격은 투쟁에서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북침을 기정사실화한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비롯하여 미국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벌어지는 6.15공동선언과 배척되는 분열주의적 망동들을 분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한다.

당면해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열린 통일행사들에 참가한 것으로 하여 공안당국의 탄압의 대상이 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방북대표들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투쟁이 6.15공동선언관철과 잇닿아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더욱 과감하고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극우보수세력과의 전면전을 더욱 힘있게 벌여 역사의 오물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할 것이다.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를 규탄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영화인회의



9월 24일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영화인 회의는 영화 ≪애기섬≫에 대한 월간조선의 보도기사와 한나라당의 논평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카시즘 색깔공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월간조선은 10월호를 통해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 촬영에 군부대 장비가 동원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는 ' 국군지휘부의 자해행위 ' 라고 표현하였고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독립영화 협회와 영화인회의는 이번 ≪애기섬≫영화는 여순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과거사에 대한 화해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영화마저도 색깔론으로 보면서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시대역행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 : 서영욱 / 작성일 : 2001-09-27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지긋지긋한 색깔공세를 규탄한다

- 영화 ≪애기섬≫ 과 관련한 월간조선의 보도기사와 한나라당의 논평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이제 영화마저도 정부에 대한 색깔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가?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는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 제작에 군부대가 장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간조선 10월호는 영화 ≪애기섬≫ 관련기사를 20면에 달하는 ≪특종≫ ≪추적≫ 기사로 다루면서, ≪애기섬≫을 ≪여순 14연대 반란 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간≫ 영화라 규정하고, 영화 제작에 장비를 지원한 사실을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9월 18일자 논평에서 ≪애기섬≫을 ≪여순반란사건 미화작업≫이라 단정하고, 군 장비 지원의 책임을 물어 김동신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현 정권의 역사관과 안보관의 혼돈성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번 사건을 정권에 대한 색깔공세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애기섬≫은 ≪여순반란사건을 미화한 영화≫인가?



영화 ≪애기섬≫은 순천에 위치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회원으로 있는 장현필 감독의 작품으로, 작년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애기섬≫은 ≪여수 · 순천 10 · 19 사건≫(월간조선이 이 성명서마저 색깔공세의 대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의 발발부터 한국전쟁 중의 보도연맹 사건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극과 다큐멘터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장현필 감독은,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인식 속에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는 미래지향적 기획의도를 담아, 진압군 출신과 반란군 출신의 주인공들이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 영화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고 말한다. 결국, 이 영화는 여순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과거사에 대한 화해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태도는 어떠한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영화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순반란사건 미화작업≫, ≪국군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부각시키고 국군이 함포사격으로 양민 천명을 죽였다고 조작한 영화≫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해 좌익사상을 담은 영화라는 붉은 낙인을 찍기에 바쁘다.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김영만이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영만은 여순사건에 관련된 유일한 비전향장기수였다. 그렇다면,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그를 인터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은 그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영화 자체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영화에 ≪빨갱이≫라는 비열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의도는 현 정부에 색깔공세를 가하는 데 있다.

영화 ≪애기섬≫이 좌익영화라면, 국방부는 좌익영화에 장비를 지원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 된다. 바로, 이 논법이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무기다. 그 때문에, 그들은 ≪애기섬≫에 붉은 낙인을 찍기에 바빴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는 것이며, ≪애기섬≫은 공격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색깔공세를 지긋지긋할 정도로 경험해왔다. 아직 기억에서 채 가시지 않은 조선일보의 최장집 교수 사건을 차치하고라도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는 8 · 15 북한 방문단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침소봉대하여 통일부 장관 사퇴로 몰고간 수구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 색깔공세를 목격하지 않았던가. 이번 ≪애기섬≫ 논란 역시 현정부의 전향적인 남북화해정책에 흠집을 내고, 역사의 물길을 냉전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수구세력의 음모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선정적으로 포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색깔 공세를 가하는 저열한 보도 행태와 정치 행태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던져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이상의 부당한 색깔공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은 매카시즘적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개인의 예술작품을 정치도구화하는 저열한 정치행태를 규탄한다!
철저한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으로 민주사회 앞당기자!

2001년 9월 24일
한국독립영화협회/영화인회의

월간조선 10월호 판매금지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 는 29일 월간조선 10월호가 여순반란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에 대해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기사의 작성 경위와 의도, 언론의 자유, 국방부 장관이라는 공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김 장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거나 말소하지 않고 발행,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삭제를 인정한 부분은 월간조선 10월호 205쪽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을 포함, 213쪽 ≪군의 태도가 반대에서 지원으로 바뀐 것은 지난 4월이 후였다고 장 감독을 말했다. 국방장관이 조성태 씨에서 김동신 씨로 교체된 후였다≫는 부분 등을 포함해 총 4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측은 ≪진실에 부합되는 사실보도를 한 기사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순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에 대한 제작지원 불가 방침이 내가 취임하면서 제작지원으로 바뀌었다는 허위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와 함께 월간조선 발행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민주노총 ≪조선일보 506부 끊었다≫

- 전국 동시다발 조선일보 규탄집회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사 앞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조선일보 규탄대회를 열고, 그동안 벌여온 조선일보 구독 중단 부수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가 지난 6월 연대파업과 8.15 민족통일축전에 대해 왜곡보도를 하고, 최근 인도적인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도 ≪퍼주기식≫이라며 반대하는 등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연대파업 왜곡보도 이후 현대증권 노조는 회사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각 지점에서 84부를 중단시켰으며, 신동아화재 노조는 단체교섭 보충협약에 조선일보 구독중지를 요구안으로 제시해 구독을 중지시키는 등 산하 노조별로 조선일보 506부를 끊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조선일보 앞 규탄대회 개최 △ 11월과 12월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 조선일보 구독 중단 운동과 평생 조선일보 안보기 서명운동 확대 △ 민주노총 산하 1800여 개 사업장 조선일보 기자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 정기국회 정기간행물법 통과를 위한 연대활동 등 조선일보 거부와 언론개혁 운동에 더욱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09/26

이종호 기자 sowhat2@hitel.net

≪8월엔 강정구, 9월엔 김동춘이냐?≫

[긴급기자회견] ≪조중동은 이성 찾길...≫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이른바 ≪깡패 방식, 윤전기 타격≫ 발언이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보수언론에 의해 크게 보도되면서 신문개혁국민행동이 ≪비이성적 왜곡보도를 중지하라≫며 긴급기자회견에 나섰다.

9월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는 발언 당사자인 김동춘 교수를 비롯, 정운현 대한매일 차장과 성유보 신문개혁국민행동 본부장,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동민 신문개혁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최문순 언론노조 위원장, 정지환 월간 말 기자 등 그 동안 언론개혁에 앞장서 왔던 인사들이 참석해 ≪언론개혁운동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모았다.

발언에 나선 정운현 대한매일 차장은 ≪조중동의 어떤 기자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취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자기들이 (현장에)오지도 않고, 이후에 후속취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침소봉대 억지보도를 할 수 있느냐, 언론재단이 시민단체를 배후에서 지원해준 것처럼 떠들지만, 정작 언론재단 지원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조선일보가 아니냐≫고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발언 당사자인 김동춘 교수는 ≪내가 워크숍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면서 조선일보가 ≪윤전기에 타격 가하는 깡패방식의 언론운동 필요≫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워크숍을 통한 내 발언의 전체 기조와도 상치될뿐더러 아르바이트 학생이 채록한 기록의 전체 내용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김 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과거에는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에게 윤전기에 모래를 뿌리는 등 타격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항의를 할 수는 없다, 대신 피해자들이 집단적인 항의전화를 해서 분노를 표출하여 언론에 충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조의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개혁국민행동은 긴급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을 대표한다는 소위 ≪빅3≫의 의도적인 편집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신문이 ≪언론≫이라는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논조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조폭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신문의 지면을 통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동춘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원대표자회의≫도 성명을 내고 ≪조중동의 보도행태가 황색저널리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대동아전쟁을 성전이라 부르며 학병모집에 나섰고, 광주의 학살자를 민족의 영웅이라 칭송했던 조선일보가 그 동안의 학술활동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옹호했던 김동춘 교수를 마녀사냥할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회원들과 학생 40여 명은 조선일보 정문과 편집국 건물, 조선일보 갤러리 주위를 돌며 항의행진을 벌였다. 학생들은 ≪8월엔 강정구, 9월엔 김동춘이냐! 조선일보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와 함께 30분 남짓 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했으며, 조선일보사측은 행진대열이 가는 곳의 출입문마다 셔터를 내린 채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윤전기에 타격 가하는 깡패방식 언론운동 필요"

언론재단 워크숍, 비판언론 공격 논의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김용술·金容述)이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22일부터 이틀간 700만원을 들여 충남 천안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사회운동 단체 책임자, 대한매일·'말'지 기자 등 50여명을 초청해 '언론개혁의 현실적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조선·동아일보 등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공격하며 정부 주도 언론개혁을 확산시키자는 내용의 논의를 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언론재단이 어제 한나라당 정범구(鄭範九) 의원에게 제출한 '언론시민단체연수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 워크숍에 참석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토론에서 언론운동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충격을 주는 것, 깡패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화로 분노를 표출하고 (신문사의)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4면

또 정운현 대한매일 차장은 "우리의 운동은 너무 점잖다. 좋은 일을 하자는 건데 좀 과격해지면 어떤가"라며, "조·중·동 안보기 운동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지환 말지 차장은 "민주당의 386 국회의원은 한겨레신문 살리기 운동을 해서, 조·중·동을 끊고 한겨레 200부를 구독하는 데 성공시킨 바 있다"며 "생활 속에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재단은 이 연수 결과보고서에서 "언론개혁운동과 같은 사안의 경우, 소그룹 워크숍과 세미나를 실시, 전국의 각 조직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타수 역할을 당 재단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단체가 시민단체를 정부 주도 언론개혁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범구 의원은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언론재단은 조·중·동을 꺾기 위한 전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원 역할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며, "김 이사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申至英기자 shin@chosun.com
/李河遠기자 may2@chosun.com

노순택 기자 nohst@ohmynews.com
2001/09/28 오후 2:52:23

신문개혁국민행동 긴급기자회견문

≪족벌언론의 비이성적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조선, 중앙, 동아는 이성을 되찾아라!≫

언론은 더 이상 시민단체의 순수한 신문개혁운동을 매도하지 말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각각 9월 26일자와 27일자 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언론재단이 후원하고 신문개혁국민운동이 주최한 워크숍내용을 뒤늦게 보도하면서 ≪윤전기에 타격 가하는 깡패방식 언론운동 필요≫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시민단체를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 워크숍 참여자의 발언도 전후맥락을 무시한 채 거두절미하고 다소 거친 언사만을 골라 침소봉대하는 왜곡된 보도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27일자 사설 ≪언론재단은 정권 하수인인가≫에서는 ≪언론개혁의 현실적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은 그 취지나 목적이 너무도 의도적이었음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며 ≪언론개혁을 깡패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면 이건 법이라는 것이 있는 정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깡패 방식≫, ≪게릴라전≫ 등 과격한 표현만을 인용하여 ≪(언론재단이)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언론이 타도의 대상인가≫에서 ≪시민단체나 사회운동가들이 특정 언론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며 ≪도를 넘는 발언을 해가며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독재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소위 ≪빅 3≫의 의도적인 편집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신문은 ≪언론≫이라는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들의 논조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조폭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성을 갖춘 집단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를 이들 신문은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이들 신문의 보도에 대해 발언 당사자인 김동춘교수는 26일 ≪과정의 이야기는 모두 생략된 채 자극적인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게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정지환 월간 ≪말≫ 기자도 27일 반론을 냈다. 그러나 조 · 중 · 동은 김교수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도하는 데 그쳤으며 왜곡보도는 철회하지 않았다.

우리는 특히 이러한 보도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된 데 주목한다. 국세청의 정당한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의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세무 및 개인 비리 수사에 대해 ≪비판언론 죽이기≫, ≪표적 수사≫라며 비난해왔던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의 연합작전이 언론개혁을 주창하는 시민단체 죽이기로 비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들은 사주가 탈세 및 비리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해오면서 이에 대한 분풀이로 엉뚱하게도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 신문이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이들 신문은 발언 당사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시일 안에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언론인과 언론사주의 품위가 실추된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한국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언론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통일 것이다. 언론은 더 이상 국민적 염원인 언론개혁 운동의 발목을 잡지 말고 언론개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28일 신문개혁국민행동

≪조선일보≫ 9월26일자 ≪언론재단의 시민단체 워크숍≫ 보도에 대한 김동춘의 입장

9월26일 조선일보에서 제가 언론재단 워크숍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며 ≪윤전기에 타격 가하는 깡패방식의 언론운동 필요≫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내용은 제가 언론재단 워크숍에서 발언한 전체 기조와도 상치될뿐더러 아르바이트 학생이 받아 적는 과정에서 저의 애초 발언의 전 내용과도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재단 워크숍에서 저의 말미 발언은 약 5분 이상 답변한 것으로서 과정의 이야기는 모두 생략된 채 자극적인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도 저의 진의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필자는 ≪과거에는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에 대해 윤전기에 모래를 뿌리는 등 타격을 가하는 행동도 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항의를 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전화를 해서 분노를 표출하여 언론에 충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조의 답변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저의 앞의 강연내용과 연계해 볼 때 ≪윤전기에 타격을 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며 저의 언론개혁에 대한 평소의 입장이나 논리와도 전혀 상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깡패방식 운운≫ 내용은 자극적인 부분만 자의적으로 과장 확대보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조선일보 식의 보도 행태를 지칭한 것으로서 필자가 발언한 기억이 있으며,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깡패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저의 강연 내용의 기조가 아니라 답변과정에서 말미에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말의 뒤에 ≪조선일보 취재거부가 기자들에게 자각을 던져 줄 것이다≫라는 발언과 연결된 것으로서 제도개혁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신문사에 직접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거론한 것이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타격을 가하자는 논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학생이 받아 적은 과정에서 비약이나 생략의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의 답변 기조는 주로 시민단체가 왜 언론개혁운동에 대해 소극적인가에 대한 방어의 형태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문제삼아 제 발언의 전체 기조를 왜곡한다면 조선일보식 보도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저와 언론재단에 대한 보도는 과거의 보도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극과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만 거두절미, 확대하여 당사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한국의 언론이 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1. 9. 26.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동춘

≪통일여명≫, ≪6.15주간≫,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집단 동지들에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통일여명≫, ≪6.15주간≫,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집단 동지들에게 우리의 동지적이며 전투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8.15를 기해 주체사상시디 배포투쟁을 성사시켜 이후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비록 파쇼의 광풍을 헤치며 죽음을 불사한 시련에 찬 투쟁이지만 정의와 애국에 살고 언제나 투쟁에 과감한 열혈 청년주체주이자들인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좌절을 모르고 끊임없는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길은 간고하고도 험난하지만 멀지 않아 우리는 자주화되고 민주화되고 통일된 새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주와 민주, 통일을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은 동지들의 지혜와 열정에 넘친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통일애국의 길에 서슴없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애국의 성스러운 투쟁대오에 동지들과 함께 서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7천만 겨레 모두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새 시대의 요구와 각계 민중의 드높은 통일열기에 맞게 동지들이 변함없이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대로서의 본분을 다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구국전선〉 편집국
주체90(2001)년 10월 1일

이남의 모든 애국투사들에게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며 이번 8.15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우리의 모든 통일애국투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비록 파쇼의 광풍을 헤치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지만 정의와 애국에 살고 언제나 투쟁에 과감한 열혈 애국투사들인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좌절을 모르고 끊임없는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길은 간고하고도 험난하지만 멀지 않아 우리는 자주화되고 민주화되고 통일된 새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주와 민주, 통일을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은 정의와 애국에 불타는 동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통일애국의 길에 서슴없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애국의 성스러운 투쟁대오에 동지들과 함께 서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7천만 겨레 모두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새 시대의 요구와 각계 민중의 드높은 통일열기에 맞게 동지들이 변함없이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을 세차게 나아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구국전선〉 편집국
주체90(2001)년 10월 1일

한국민족민주전선

≪두 개 전선≫과 ≪하나의 전선≫

통일여명 편집국 공개질의(편집국 보도 7호)

공개질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내외의 정세가 격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 우리 민족민주세력의 전략전술론도 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인식의 출발점이며 이론발전의 추동력인 만큼 이는 당연한 현상이며 또한 바람직합니다. 한편 보위에 큰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새로운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이론과 관련한 좋은 논문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어 많은 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이론실천적 방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남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인터넷 월간 자료집 ≪통일여명≫은 이런 좋은 논문들을 부각시키고 더욱 널리 열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1년 상반기 주요논문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집의 대표적인 두 필자가 서로 상충되는 글을 발표하여 많은 운동가들에게 혼란이 생기고 있으며 도대체 ≪통일여명≫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문의하는 일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두 개의 논문은 바로 최성원동지가 대표집필한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2001년 5월 21일 발표, 이하 ≪두 개 전선≫)과 이산동지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2001년 8월 17일 발표, 이하 ≪새로운 전진≫)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두 필자를 높이 평가하며 적극 내세운 우리 통일여명 편집국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게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심끝에 우리는 먼저 두 필자에게 두 개의 논문 상의 논쟁점을 비롯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개질의를 하게된 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통일여명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운동가들, 독자들의 문의가 첫째 이유이고, 두 논문의 쟁점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전술과 당면정세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둘째 이유이며, 현재 변화된 정세하에 복잡한 통일전선론을 다루고 있는 두 논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운동대오에 유익하다는 것이 세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논문의 의의를 다시금 밝히면서 쟁점을 짚어보는 것은 운동가들의 이해와 이론적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공개질의에 대한 두 동지의 답변과 운동대오의 요구에 따라서 적절한 계기에 자신의 명확한 견해와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최성원동지에게

1.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이 풍부한 자료와 정확한 개념으로 빛나는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최성원동지와 관련동지들에게 변혁적 경의의 인사를 보냅니다. ≪두 개 전선≫을 발표하기까지의 준비과정과 발표배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보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최성원동지가 대표집필한 ≪두 개 전선≫에서는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 지역통일전선에 대한 개념정의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변혁운동사상 통일전선론과 관련하여 이처럼 명확하게 개념정의한 논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전선≫이란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을 말하는지 확인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통일전선론은 아무리 보아도 생소합니다.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산동지의 ≪새로운 전진≫에서 통일전선을 낮은 단계, 높은 단계로 나누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유의하며 답변하여 주시면 이 비판에 혼란해 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입장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통일전선의 구체적 표상을 ≪통일연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의 관계를 현재 전국연합과 통일연대(또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 언급되었으면 합니다.

3. 최성원동지가 집필한 논문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특히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전국적 관점에서 대담한 견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견해가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전략적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는 정세상 변화를 반영한 신축성있는 전략전술인지 아니면 이산동지의 비판처럼 비주체적이며 ≪수정주의적≫인 견해인지 많은 운동가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연설명하면 변화된 정세와 내외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전국적 관점의 포진구도에서 설명하신 견해, 곧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주력은 이북이며 이남은 방조역량이라는 견해와 남북의 변혁역량의 조직적 결합을 이루어내고 이남 민족민주세력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이산동지의 비판에 유의하며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이하 자민투위)는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은 동의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변혁과 통일을 이룩하자≫, 2000년 9월) 최성원동지는 두 개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언급하며 추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시기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가능하다면 약속대로 그 차이에 대하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민투위는 같은 논문에서 반미구국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을 각각 자주민주와 자주민주통일로 강령에서 구별된다고 하였는데 최성원동지는 모두 민족민주전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산동지도 ≪새로운 전진≫에서 반미구국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전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밝힐만한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해 하는 많은 운동가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이 기회에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5. 잘 알다시피 90년대 내내 이남 민족민주세력 내에는 범민련과 민족회의, 범민련과 ≪새로운 통일운동체≫, 범민족대회와 ≪하나의 대회≫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최성원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 올해에는 ≪통일연대≫가 결성되었으며 8.15에는 범민련의 강령이 조국통일3대헌장에서 6.15공동선언으로 하향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범민련과 통일연대의 상호관계가 앞서 언급된 민족통일전선론, 지역통일전선론과 관련하여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산동지의 ≪하나의 전선론≫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지난해 말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정사항, 즉 전국연합의 범민련에의 가입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지, 민

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이산동지의 글을 통해서도 강조되었던 바, 현재 이남에서 통일전선과 관련하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쟁점은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대규모의 강력한 민족민주전선체건설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대규모의 위력한 민족민주전선건설의 원칙과 방도에 대한 최성원동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향후 민족민주전선이 어떠한 경로를 거치며 건설될 것인지, 논문에서 밝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단계설정과 관련지어 설명하여 주신다면 이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많은 동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주체철학은 맑스레닌주의의 존재와 운동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더하여 존재와 속성, 운동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면서 유물변증법도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성원동지의 ≪두 개 전선≫은 김대중정권의 네가지 속성을 제시하는가 하면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적 타격≫과 속성을 반대하는 ≪전술적 타격≫의 새로운 전략전술적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김대중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민족민주이론의 중요쟁점에 대하여 참으로 명료한 견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연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내내 김대중정권퇴진의 구호를 제기하였던 노동운동이나 통일운동일각의 좌경적 노선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 논문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언급은 그 종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기에 대단히 절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정당과 관련한 그 짧은 한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지의 확고한 견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남 운동대오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인 진보정당건설에 대한 동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지점은 비합법 전위당과 합법적 진보정당 간의 관계, 진보정당의 전략적 의의, 진보정당의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합법적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견해, 현재 민주노동당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국연합과 한총련의 가입 이후 그 바람직한 상호관계에 대하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산동지에게

1. 우리는 먼저 지난 해의 ≪한국변혁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하여≫(이하 ≪방향정립≫, 2000년 12월 발표)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새로운 전진≫을 발표함으로써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이론실천적 진보를 위해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는 이산동지에게 변혁적 경의의 인사를 보냅니다. 두 논문을 발표하기까지의 준비과정과 발표배경을 가능한 선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잘 알다시피 지난 해 말에 발표된 ≪방향정립≫의 ≪한총련비선≫에 대한 신랄하면서도 예리한 비판이 많은 운동가들에게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해 여름 자민투위는 ≪일체의 분파주의를 타파하고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자≫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한총련비선분파≫를 정면에서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운동내의 분파주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은 지난 해 가을 한민전의 ≪현시기 학생운동강화의 요체≫라는 논문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촉진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산동지의 ≪방향정립≫논문까지 연이어 발표됨으로써 올해 상반기 반분파주의, 반관료주의 사상전을 사실상 예고하였다고 봅니다. 이산동지가 그 논문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한총련비선≫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비선≫의 서클식 조직노선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함께 변혁적 조직노선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다면 많은 조직운동가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산동지는 지난 논문과 이번 논문 공히 주체사상신봉자대오가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사상운동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 사상사업을 선행하지 않는 한 한국변혁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동지의 90년대 사상운동에 대한 총화와 더불어 향후 10년간의 사상운동은 어떠한 목표와 원칙,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정세조건, 곧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다보는 시점, 그리고 주체사상선전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조건에 맞게 주체사상을 시급히 대중화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하여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새로운 전진≫은 올해 상반기 노동운동상의 좌편향과 통일운동상의 우편향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일운동상의 좌우편향은 자통협의 정권퇴진투쟁과 실천연대의 정부와의 사업주장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하여 6.15공동선언이라는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된 조건에서 자통협이 통일연대와 민화협과의 연대연합을 반대하는가 하면 반정부투쟁과 민주화투쟁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중의 준비정도와 정서에 맞지도 않는 현정권퇴진투쟁을 전개한 좌편향과 이남 정부는 이북과의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인데도 지역통일전선인 통일연대나 그 소속단체가 정부와의 사업을 강조하며 이에 역점을 두는 것은 우편향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이산동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이산동지의 ≪새로운 전진≫은 최성원동지의 논문을 사실상 지목하며 ≪반미자주화의 중심을 이북으로 하고 이남을 보조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사상에서 주체가 서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성원동지는 주한미군철수투쟁의 해방직후와 베트남, 필리핀 등의 사례를 들고 조미대결전이 승리한 조건과 전국적 판도에서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를 볼 때 이북이 주력이고 이남이 방조역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이자 주력은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솔하시는 해외의 항일무장투쟁역량이었습니다. 오늘 반미자주화투쟁의 주력군을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솔하시는 막강한 조선인민군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이북민중이라고 보는 것이 과연 ≪사상에서 주체가 서있지≫ 못한 비주체적인 견해, ≪이남민중의 힘을 믿지 못한≫ 견해인지 이산동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성원동지의 논문에는 이남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을 반미사일방어체계투쟁을 중심에 놓을 것이 아니라 미군범죄문제, 미군기지문제, 양민학살문제, 무기강매문제, 주둔군지위협정문제, 등 대중의 생활적 요구를 반영한 일상적 반미투쟁을 완강하며 전개함으로써 대중을 각성시키고 단련시켜 결국 대중이 ≪미군철거투쟁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미군철수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미군철수투쟁을 국가보안법철폐투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전략적 노선상 수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산동지는 최성원동지가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투쟁의 기본전략을 ≪수정≫하였다고 보는 것입니까. 한편 최성원동지는 전국적 판도에서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남 민족민주세력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본과제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며 따라서 이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남측 민족민주세력과 북측 반제자주역량의 조직적 결합을 보장해주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탁월한 전략가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명저 ≪세기와 더불어≫의 5권에서 30년대 후반부터 해방시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침을 ≪해외무장투쟁과 국내정치투쟁의 일원화≫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남북변혁역량의 조직적 결합을 실현시켜주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민전의 올해 신년서한은 민족민주세력이 지난해

에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전략전술을 다양하고 신축성있게 구사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적하면서 올해의 중대한 과제로 ≪전략전술의 세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변화된 정세에 맞게 신축성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결코 배치되지 않으며 민족해방의 그날까지 반미자주를 주선으로 틀어쥐면서도 당면한 전술적 단계, 곧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된 조건에 맞게 신축성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고 절박한 정세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성원동지가 제출한 의견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도리어 ≪교조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반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산동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6. 이산동지는 ≪새로운 전진≫에서 반미구국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혼용하며 사용하다가 그 이후 각각 강령에서 자주민주와 자주민주통일로 구별되어 사용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진≫은 통일전선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나누는 것을 ≪자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조건에서 이남에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보다 높은 강령의 민족민주전선과 6.15공동선언이라는 보다 낮은 강령의 통일연대(또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라는 두 개의 전선이 존재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산동지의 견해가 6.15공동선언이 실현되기 이전에도 ≪하나의 전선≫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하나의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가 있었다면 통일연대와 같은 6.15공동선언실현을 강령으로 하는 통일전선조직은 애초부터 불필요한 조직이었다는 견해인지 그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성원동지의 논문은 (전국연합과 같은)민족민주전선이 (통일연대와 같은)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지 이를 (당적으로)≪지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국연합은 통일연대를 건설하는데서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서나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산동지의 ≪새로운 전진≫도 전국연합이 실질적으로 (통일연대 등) 연대연합운동의 모든 정책과 실제 조직사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노동당이 대규모 민족민주전선건설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위당의 지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이산동지의 ≪새로운 전진≫도 민주노동당이 전선건설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전선이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전위당의 통일전선에 대한 당적 지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이산동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 이산동지가 ≪새로운 전진≫에서 역점을 두며 강조하신 내용은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는 전선들을 묶어세우는 위력한 민족민주전선건설, 이른바 ≪하나의 전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질이 전혀 다른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무리하게 통합하려 하는 절충주의적 견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선≫이라는 견해가 지난해말 하반기 전국연합대의원대회에서 전국연합이 범민련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지난해 노동당행사를 갔다온 대표들의 의견에 의하여 사실상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유가 단순히 범민련이 이적단체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산동지의 이 대의원대회결정과 그 번복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나온 김에 지난 90년대 통일운동상의 심각한 분열을 야기하며 절충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로운 통일운동체론≫과 ≪하나의 대회론≫에 대하여 이산동지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함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산동지의 비판들이 모두 최성원동지의 논문의 중심내용인 반미자주역량의 전국적 포진구도나 국가보안법철폐의 전국적 관점의 의의, 그리고 전국적 범위의 민족통일전선과 그 일부인 지역통일전선의 의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산동지의 비판들이 모두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반국적 관점≫의 오류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 ≪하나의 전선론≫도 마찬가지의 오류에서 기인한 그릇된 견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지적과 비판은 향후 통일전선건설사업에서도 끊이지 않고 제기될 초미의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산동지의 최근논문이 ≪하나의 전선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운동대오에 이와 관련한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책임있는 해명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산동지의 명쾌한 견해와 입장을 기대하겠습니다.

8. ≪방향정립≫이 전국연합의 여러 한계를 지적하며 진보정당을 ≪벤처정당≫이라고 그 의의를 단적으로 밝혔다면 ≪새로운 전진≫은 한발 더 나아가서 당면하여 초미의 관심사인 진보정당건설의 중대한 의의와 함께 그 구체적 건설방도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민투위는 자신의 강령적 문건, ≪한국청년전위의 임무≫에서 진보정당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건설하는 ≪(합법적인)주체세력≫이라는 견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한백연동지의 논문(≪한국민족민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체의 조직문제≫, 2000년 11월 발표)의 기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산동지는 ≪강력한 민족민주전선≫이라고 표현하고 전국연합은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과 민족민주전선과의 관계, 특히 진보정당이야말로 대규모의 위력한 민족민주전선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는 견해에 대한 이산동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두 동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비록 8개 단락에 불과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그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모두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동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너무나 단도직입적이어서 공개질의가 갖추어야 할 예의를 잃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최성원동지에 대한 선제비판을 가한 이산동지에 대하여는 최성원동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론이나 운동대오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판을 중심으로 질의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동지의 사상이론적 수준과 문체의 고상한 품격으로 보건대 우리의 충정어린 본심에 대한 오해는 있지 않을 것이며 주변적인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도 널리 이해될 것이란 믿음은 확고합니다.

두 동지의 답변이 이러한 이론실천적 문제에 대한 많은 운동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를 감안하여 가능하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진다면 매우 고무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동지의 뛰어난 이론적 능력과 탁월한 문필력을 볼 때 비록 위의 질문들이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집필은 하루이틀이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두 동지가 이러한 공개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러한 공개질의가 유례없는 일이며 사안이 민감한지라 답변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상심할 만한 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두 동지의 명확한 견해, 입장을 듣고자 하는 많은 운동가들의 사상이론적 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며 아쉬움도 크리란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두 개의 전선≫이든 ≪하나의 전선≫이든 모두 한국변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적 관점에서 오랜 연구 끝에 제출된 견해이며 이처럼 심도있고 품격을 갖춘 논문들의 발표는 우리 운동의 사상이론적 발전을 위해 매우 유익한 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두 걸출한 이론실천가인 최성원동지와 이산동지, 이산동지와 최성원동지의 변혁적 역할이 향후에 더욱 높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9월 25일
서울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

통일여명 편집국 호소문(편집국 보도 10호)

하반기 들어 진보정당건설논의가 민족민주세력의 최대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을 결의하고 지금은 이와 관련한 인입활동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전국연합은 역시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논의결정한 바에 기초하고 최근 중앙총회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며 결의한 사항에 의거하여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도 이와 관련한 지역총련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강연회, 간담회를 열며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진보정당건설사업은 6.15공동선언 이후 급변하는 정치정세와 내년의 양대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며 속도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총련운동가들이 조국의 운명을 진두에서 개척하는 선봉대, 주력군답게 자주적인 관점에서 책임있게, 창조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진보정당건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결집할 때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논의되고 추진되는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과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국민대중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는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입니다.

애국적인 혁신정당이자 통일전선적인 합법정당인 진보정당은 그간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해 왔던 한총련의 관점에서 볼 때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변혁적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보정당건설은 한총련의 강령이자 지향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자주민주통일의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상승발전시켜 광범한 대중을 자주의식화, 조직화하고 대중투쟁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일반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우선 자신의 우월한 조직체계, 선전수단들을 활용하는 한편 일상적인 대중정치사업과 선거 및 의회 연단을 통한 주동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민주통일의 이념과 강령으로 의식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또한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과 자신의 대중활동, 합법적 정치투쟁으로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60년대 혁신정당이 이룩하였던 성과를 계승하여 대규모의 위력한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데서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또한 정당이라는 우월한 조직 및 선전 체계를 이용하여 자체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 한편 민족민주단체들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적극 지지원호함으로써 운동의 대중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가며 선거 및 의회 연단을 활용하는 합법정치공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조건과 조미수교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역사적 전환국면이 도래하고 있는 정세로 보건대 진보정당의 의의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보정당건설은 한총련의 절박한 당면요구인 한총련합법화와 운동대중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한총련이 합법적인 진보정당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면 그간 파쇼당국과 매문언론에 의하여 조작되었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적 인상은 크게 극복될 것입니다. 물론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철폐하고 합법화의 숙원을 이룩하는 사업이 진보정당가입으로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공안당국이 무슨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학생운동을 탄압하려 할 경우에도 한총련은 이전의 대중조직체계 외에 당조직체계라는 위력한 수단을 가지고 탄압책동을 주동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십개 정파가 모여 공동목표를 가지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민주노동당으로의 결합을 계기로 한총련은 자신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민중민주계열을 비롯한 제 학생운동세력과의 연대활동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족해방계열만이 아니라 민중민주계열까지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광폭의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하는 사업이 매우 용이해 질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급을 망라하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합법적 진보정당에 한총련이 적극 결합한다면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학생운동과 기본계급운동과의 연대연합을 크게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연합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크지만 현재 위축된 학생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운동을 대중화, 합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은 명백합니다.

또한 진보정당이라는 당 조직 및 선전 체계를 통하여 기존의 학생운동, 곧 학생회 중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운동을 당차원의 높이에서 전개하는 전환적인 국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실현이라는 한총련의 강령을 진보정당이라는 합법적이면서도 위력한 조직선전체계를 통하여 학생대중에게 홍보하는 한편 이러한 이념과 강령 하에 학생운동을 전개할 활동가들을 합법정당차원에서 공공연히 모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학생운동이 대중적 지반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운동핵심들을 대대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학생회중심체계로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투쟁에 당차원으로 결합함으로써 세련되고 능란하게 선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거 때마다 ≪참여≫니 ≪보이코트≫니, ≪독자후보≫니 ≪단일후보≫니 뭐니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역량을 허비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방비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보정당건설은 한총련이 그간 악전고투하면서 견지하여 왔던 자주민주통일노선을 당차원의 운동으로 상승발전시키는 한편 현재 한총련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총련합법화, 운동대중화에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에 가장 근접하고 있으며 발전전망이 확고한 진보정당은 바로 민주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시기 한국혁신정당사에 명멸하였던 수많은 진보정당들과는 확연히 다른 조직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주민주통일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강령에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 건설되었으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무시못할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한편 갈수록 당세가 확장되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소유한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아직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정치강령이 있다거나 민주노총, 전빈련 외에는 이렇다할 대중조직을 인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 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조직세가 발전하는가 하면 내년의 양대선거를 앞두고 ≪재창당≫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이며 발전전망있는 진보정당이라는 점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참다운 진보정당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족민주세력의 기대와 희망은 한국민족민주세력의 대

표적인 연합체인 전국연합이 올해초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건설을 논의결정하고 최근의 중앙총회에서 결합을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민주전선체로서 현재 전농을 비롯한 여러 민족민주단체들을 내포하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전국연합이 민주노동당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됨으로써 이제 민주노동당은 비약적으로 강화된 조직력을 가지고 향후 대중 및 선거 투쟁에서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학생 또한 얼마전 충청총련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동당 관련 안건을 제출하고 그 구체적 추진여부를 대표자회의에 위임하였는가 하면 민주노동당가입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총련에서는 간담회를, 고려대에서는 강연회를 여는 등 전국의 여러 지역, 주요 대학에서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학생운동의 대표체인 한총련이 객관정세에 주동적으로 조응하는 한편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급히 조직적 논의를 결집하고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절박하면서도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총련의 조직적 논의와 결정은 전국연합과 충청총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진보정당건설과 결합이라는 중대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광범한 학생대중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한 측면과 반미반이회창투쟁 등 당면정세가 요구하는 기타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의 중대한 양대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는 대의원대회개최시기는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추석전이 불가능해진 현시점에서 대학선거일정과 대의원보위를 고려하여 볼 때 남북학생대토론회가 열리는 10월 20일이 마지막 계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총련의 민주노동당가입과 관련한 활동은 철저히 대중중심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공개적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한총련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며 제 사업을 주도하는 운동가들, 이른바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지금 학생대중들을 중심에 놓고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하고 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동하며 민주노동당과의 결합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뒤로는 민주노동당과의 ≪비밀간담회≫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데, 이는 비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작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당면정세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측면에서나 한총련운동의 차원에서나 전환적 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진보정당건설사업이 결코 대중중심의 원칙에서 속도있게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이 당면한 민주노동당과의 결합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업은 지난 기간 ≪민주노동당노선은 개량주의노선≫이라고 규정하며 학생운동가들의 민주노동당관련 관점을 왜곡시켰던데 대한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총화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총화가 선행될 때만이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을 따르는 일부 기층운동가들을 비롯해서 대다수 학생운동가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 견해를 긍정적 견해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올바른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그간 진행된 민주노동당과 한총련상집 간의 간담회의 내용조차 중집에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 올해가 다 가고 있는 지금까지 중상은 말할 것도 없고 중집에서조차 진보정당관련 논의를 단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허심하게 총화하여야 다른 운동가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의 양대선거와 그 시금석이 될 10.25 보궐선거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민주노동당을 공공연히 비판하던 전국연합까지도 그 결합을 결정하고 전면화하는 이 전환적 국면에 아무런 공식적 논의도 없고 구체적 일정이나 대책도 없는 오늘의 한총련상황을 보고 백만학도를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한국변혁운동을 진두에서 개척해 나아가는 한총련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한총련내 다른 일부운동가들은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이 10월 말에 중앙총회를 통해 민주노동당결합을 위한 정치위원회를 결성하고 한총련간부결의자들은 그 위원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에 동요하며 일정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대중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이 여전히 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업하기보다는 자파의 이익과 준비정도를 앞세우며 민주노동당관련 한총련일정을 잡고 소극적으로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에서 이들 일부운동가들의 동요와 협조는 결과적으로 ≪한총련주도운동가≫들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운동가들은 대중중심이 아니라 분파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항상 분파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유야무야되는 법이며 당면한 민주노동당결합문제와 관련한 약속 역시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은 추석이 임박한 오늘까지 중앙총회개최와 관련한 그 어떤 중집회의나 중상회의도 추진한 바 없으며 그들이 주최하는 대중적인 강연회나 공개적인 간부간담회가 열린 적도 없으며 진보정당 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무런 홍보선전활동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대중을 중심에 놓고 활발한 정치토론과 주도면밀한 정치사업 속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추진되어야 할 한총련의 진보정당건설문제, 민주노동당결합문제가 주인인 대중을 소외시키며 상층간부중심으로, 그것도 일부 분파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비밀리에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한총련이 10월이라는 마지막 시기까지 놓치며 올 하반기도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합의도, 결의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10월말 중앙총회를 은밀히 흘리다가 결국 이를 파기한 ≪한총련주도운동가≫들이나 이에 동요하며 협조한 다른 일부운동가들이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총련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업하지 못함으로써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는 사업에서 분파주의, 소극보신주의의 오류를 범하며 대중과 역사 앞에 응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진보정당이 90년대 초중반에만 건설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남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민족민주운동은 지금보다 훨씬 전진하였을 것이며 객관정세도 더욱 변혁에 유리하게 전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학생운동의 지도부들은 과학적인 정세인식과 주동성, 적극성의 부족으로 운동발전의 결정적 계기들을 놓쳤던 경험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중과 역사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관점과 태도에서 당면한 진보정당건설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급변하는 정세는 더더욱 청년학생운동가들을 비롯한 제 민족민주세력이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건설로 자주민주통일운동은 대중화, 합법화의 전기를 마련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며 민족민주세력은 향후 정치정세를 주동적으로 타개해 나아갈 강력한 변혁적 무기를 틀어쥐게 될 것입니다.

한총련운동, 한국변혁운동의 비약과 승리를 위한 전환적 계기인 진보정당건설에 한총련운동가들이 적극 떨쳐나설 것을 확신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9월 22일
서울

한국에서 가칭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가칭 평화통일시민연대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창립취지문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통일문제에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의 창설이 시급한 문제라며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논의의 균형화, 통일정책의 대안화의 3대 원칙아래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연대는 강령목표로 남북7.4공동성명 및 기본합의서의 조속 이행, 6.15공동선언실천,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 남북간 평화구축 및 한반도비핵화, 시민들의 통일교육 등을 내걸었습니다.

창립취지문과 강령목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출범한 평화통일시민연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써 앞으로 평화통일운동을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가 하에 벌어지는 대중운동으로 보다 확산 고조시킬 수 있게 한다는데 그 출범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앞에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민족사적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구상에 분단국가로써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국토분단으로 인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단돼 살수 없으며 하루빨리 나라를 통일해야합니다. 그런데 부시미국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을 들면서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이 땅의 반통일우익보수세력들 역시 미국상전의 비호사주하에 국민들 속에 대북적대의식과 전쟁열을 고취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고의적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외의 반통일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저지분쇄해야합니다. 그러자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광범위한 각계 민중들을 내외반통일분열주의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분기시켜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을 망라하는 연대조직들을 내와서 투쟁을 조직화, 대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출범한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고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화통일시민연대를 출범시킨 것은 금후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놓은 큰 성과이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습니다. 출범한 평화통일시민연대를 명실공히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일사분란한 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광범위한 대중을 평화와 통일운동에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평화 및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공헌하는 애국단체로써 자기 중임을 다 해야 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계, 통일염원 순례행사 가져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지난 9월18일부터 24일까지 6박7일간 압록강과 두만강지역을 순례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기원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순례행사에는 학담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을 순례단장으로 스님 7명과 신도 등 총 16명이 참가하였고, 첫날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정착하여 활동하던 중국 심양 서탑거리를 둘러보면서 시작하여 압록강 단교철교에서 19일 통일기원제를 올렸다.

통일기원제를 올리며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남과 북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이천만 불자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5일째(22일) 백두산 등정과 함께 통일기원제를 한번 더 올리고 통일의 염원을 민족의 성지에 담아내고 심양을 거쳐 순례행사를 마감하였다.

통일뉴스 2001-09-26
오인환 기자(tongil@tongilnews.com)

≪북한어린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구로초등학교내에 ≪한마음 통일터≫ 운영

서울남부교육청은 구로초등학교 교재원 2층에 ≪한마음 통일터≫를 개설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개관한 한마음 통일터에는 통일에 대한 남측 정부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주고 북한의 의. 식. 주를 담은 ≪전시마당≫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에 관련한 각종 영상자료 및 도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자료 관람 등을 이용한 ≪영상마당≫이 꾸며져 있어 수업시간에 배울 수 없는 다채로운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

한마음 통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청산 원장은 ≪통일교육은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생각하게 만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마음 통일터 공간에 대한 흡족함을 표시하고 이와 같은 공간이 점차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부교육청 이춘혜 장학사는 ≪교과서만으로 부족한 내용들을 각종 자료를 통해 알려내어 통일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한마음 통일터가 해 주길≫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마음 통일터를 관람한 아이들도 ≪참 좋았다≫,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등의 소감을 털어놓았다.

윤은지(구로초등, 5) 어린이는 북한에 대해 잘 몰랐는데 ≪북한의 옷, 신발, 책 등을 보며 북한 친구들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고, 한 어린이는 통일후의 국가, 국기, 국화 등은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으며 ≪북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어 재미있게 놀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구로초등학교 5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박영애 교사는 ≪북한을 바라보는데 보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통일 후 서로를 인정하며 마음을 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영애 교사는 ≪북한에 대해 피상적이기보다는 사실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호소했다.

현재 한마음 통일터는 서울 남부에 있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통일강의, 전시물 관람, 영상물 관람 등 총 3시간에 걸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가끔 인근에 있는 중학교와 다른 지역 초등학교도 학생들도 관람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한마음 통일터 개관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누구든지 관람이 가능하다.

앞으로 남부교육청은 추가적인 계획보다는 한마음 통일터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과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뉴스 2001-09-29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2001 비무장지대 평화촌≫ 10월 27일 개막

완전무장된 ≪비무장지대≫에 총포 대신 평화의 노래가 울린다면, 어두운 녹색이 뭉개진 옷을 입은 군인의 구령대신 오색찬란한 이들의 함성이 울린다면, 땅 밑 얇게 묻혀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대신 생명을 노래하는 그림이 전시된다면, 이곳은 이미 평화롭다.

지난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당시 소설가 황석영 씨와 북의 문화예술총동맹의 장철 위원장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촌 행사가 구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아이러뷰경의선이 함께 하는 2001 평화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5일간 경의선이 지나가는 도라산역 부근 민통선과 비무장지대서 이번 행사를 갖기로 확정했다.

지난 55년간 분단을 증거하며 남북 양쪽의 삶에서 유배된 땅이었던 비무장지대에 평화를 부르는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살림살이가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시작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이번 행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하는 이들이 참여할 전망이며, 음악회와 작가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4박5일간 하루에 4천여 명, 모두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평화운동가 조디 윌리엄스 촌장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뢰 제거와 한반도 통일≫ 강연, 남과 북,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등 세계 분쟁국가 10여개국 작가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작가회담, 남북 대중문화예술인과 성악가, 남북 합동 교향악단 등이 참가하는 ≪2001경의선 평화음악회≫, 비무장지대와 통일, 경의선 등을 주제로 한 무용, 연극 공연, 그림 · 사진 · 조각 전시회 등을 열린다. 또, 이번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는 일본의 작가 오에 겐자부로, ≪전쟁과 슬픔≫의 베트남 작가 바오 닌, 경의선의 마지막 기관사인 한준기 씨, 연극배우 김지숙, 무용가 이정희 씨 등이 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가지는 ≪평화≫의 의미를 지속하기 위해 내년에도 평화촌 행사를 열어 월드컵과 연계시키는 한편, 비무장지대의 평화 · 관광의 가치를 남북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에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북쪽 문화유적 조사, 평화적 이용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직위는 생태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평화박물관≫ 건립운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예총 일일문화정책동향 418호

≪코리아 평화와 통일 위한 국제 여성연대모임≫이 카나다 토론토에서 열려

≪코리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여성연대≫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Women in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가 2001년 9월 23일-29일 카나다 토론토 근교에서 있었다.

이 회의에는 남, 북, 미국, 카나다, 일본, 필리핀, 중국 등에서 온 28명의 여성들이 참석했으며, 코리아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여성들만의 국제적이고 에큐메니칼 차원의 첫 번째 모임이었다. 이 회의는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교회세계봉사. 증거사무실≫이 후원하는 ≪코리아 여성 동반자 위원회≫가 주관하였고 ≪카나다연합교회≫의 지원과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목적은 코리아, 북미주, 아시아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의 교류를 증진하고, 여성들이 서로의 역할과 지원을 서로 배우며, 해당 소속 사회에서 코리아 통일에 공헌하는데 있었다. 또한 에큐메니칼 여성운동으로 코리아 상황에 맞는 코리아의 정의, 평화, 화해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추구하는데 있었다.

대부분의 회의를 비공개로 했고 28일(금) 저녁예배는 토론토한인연합교회에서 공개로 해 많은 지역교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남한(ROK)에서는 이우정, 송영자(Song, Young-Ja), 성영자(Sung, Yong-Ja), 이 숭리(Lee, Soong-Ri), 신선, 한국염 , 이문숙 씨 등이, 북한(DPRK)에서는 안송희, 홍선옥, 리산옥, 김혜숙 씨 등이 참석했다.

박성환 담임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미국에서 온 함정례 목사, 낸 허드슨((Rev. Dr. Nan Hudson) 목사가 영어와 한국말로 예배인도를 했다. 북쪽대표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김혜숙 씨가 성경을 읽었고, 필리핀의 Sharon Rose Joy Ruiz Duremdes 목사가 'We came to Remember and Re-Member"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참고로 이곳 카나다는 북한과 올 2월에 정식수교를 했으며, 토론토 혹은 오타와에 대사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회의를 마친 후 발표된 보고서에는 다음의 건의문(Recommendations)이 들어있다.

1. 우리는 2000년 6월 15일 남. 북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환영하며 양측이 이같이 좋은 과정을 지속하기 바라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2. 우리는 6.15 북. 남 공동선언을 자주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데서 카나다, 미국, 그 외 정부들이 이를 인정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는 카나다 정부가 조선과 체결한 외교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책정하고, 정부관료, 학술, 종교지도자, 기술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교환을 지원하기를 권합니다.

4. 우리는 카나다 정부가 지난 수년동안 조선에 인도주의적이고 개발 협조를 해 온 깊은 전통을 계속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5.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 미 고위회담을 재개하기를 요청하며, 1994년 ≪조. 미 기본 합의문≫과 그 안에 포함된 에너지 약속을 포함하여 미국의 전 행정부 때에 시작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를 요청합니다.

6. 우리는 미국 정부에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결정을 다시 고려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정책이 아시아의 무력 경쟁을 고무시키고 미국과 해외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돕는 프로그램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7. 우리는 일본정부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부에 의해 ≪정신대≫라고 불리우는 여성을 성노예화시킨 행위를 사죄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식 사과 및 정당한 배상을 요청합니다.

8. 우리는 일본이 일부 교과서 및 그 외 출판물에 나온 역사 왜곡을 묵인함에 대해 항의하며, 제 2차 세계대전 역사와 책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솔직하고 명백한 재검토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9. 우리는 코리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교회 안팎의 여성들이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외 국가의 에큐메니칼 조직에서 코리아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국제적인 연대망을 구성하기를 권합니다.

10. 우리는 일년 안에 제 2차 회의를 아시아 혹은 북미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11. 우리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개발한 공동 기도 및 예배문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코리아 기독교 여성들이 공동기도문, 신앙고백, 예배문을 함께 개발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에큐메니칼 교회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 우리는 코리아 통일에 관한 이해와 헌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자료를 해당 조직들이 개발하기를 권합니다.

13. 우리는 여성들의 교환방문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원합니다.

14. 우리는 ≪세계교회협의회≫,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카나다연합교회, 교회세계봉사. 증거사무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 및 그 외 에큐메니칼 조직과 해당교단들이 코리아 평화. 통일을 우선 사업으로 채택하기를 요청합니다.

15. 우리는 카나다와 미국의 교회조직들이 ≪교회세계봉사. 증거사무실≫과 교단 경로를 통하여 인도적이고 발전적인 협조를 지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 : 24)

2001/10/01

최태영 기자 choi980@hanmail.net

기장 전북지역 4개 노회 통일, 평화를 위한 연합 기도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북지역 4개 노회(전북노회, 전북동노회, 익산노회, 군산노회)는 9월 27일(목)에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남측 내부의 갈등을 우려하고,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이후 경색되어지는 세계 정세를 걱정하며 ≪민족의 평화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전주 금암교회당에서 목회자와 성도 200 여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차량행진을 통해 선언문을 민주당과 한나라당 도지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 순서와 선언문 올리오니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명: 민족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장 전북지역 4개 노회 연합 기도회

일　시: 2001년 9월 27일 오후 2:00

장　소: 전주 금암교회당

주　최: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 및 전북동노회 및 익산노회 및 군산노회 연합

주　관:

전북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및 평화통일위원회

전북동노회 교회와사회 및 평화통일위원회

익산 노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군산 노회 사회 평화통일위원회

행사 진행 순서

1부 여는 예배

사회: 고민영 목사 (임마누엘 교회, 전북동노회 교회와사회 및 평화통일위원장)

설교: 전 병 생 목사 (익산 단비교회, 익산노회 증경노회장)

2부 강연회

강사: 문대골 목사 (생명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장)

3부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독인 선언문 낭독 및 기도회

선언문 낭독: 김영우 목사(익산 주님의 교회, 익산노회 교사위원장)

①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이강실 목사 (고백교회, 전북통일연대 대표)

②농민정책과 북한동포 돕기를 위한 기도: 여태권 목사 (율곡 교회, 전북 농촌목회자회 회장)

③미국의 보복전쟁 반대와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 박형구 목사 (호성교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증경회장)

4부 차량 홍보 및 선언문 전달

차량을 10여대씩 나누어 전북노회와 군산노회는 민주당 도지부에, 전북동노회 익산노회는 한나라당 도지부로 향해서 사무처에 선언문을 전달함

민족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독인 선언문

≪그가 민족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이사야2:4)≫

새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 6월에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6.15남북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남북의 두 지도자는 5개항을 합의하여 남북간의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남과 북이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우리 민족끼리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을 포함한 모든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의 부시로 바뀌고 나서 북-미간 대화가 경색되더니,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군수 산업체 이익에 충실한 부시 정권은 북한을 포함한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신냉전≫체제를 꾀하고 있다. 냉전의 시작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보수층들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제3세계 민중들, 그 중 가장 위험한 지역인 한반도가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다.

이에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전북 기독인들은 9.11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더욱 경색되어지는 세계 정세를 우려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심정에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과감하게 실현해야 한다. 수구 반통일 세력들의 어떤 방해 책동에도 굴하지 말고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심정으로 북한 당국과의 평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당당한 외교를 진행해야하며, 특히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슬기를 집약하여 자주적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나라당 자민련 내 수구 정치인들, 일부 보수언론, 재벌 등의 구 기득권 층들에게 경고한다. 민족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수구세력들의 행위는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민족적 이익보다 개인과 파당의 이익을 앞세우다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반북(反北) 대결의식을 청산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평화 공존의 길에 동참하라.

3.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의 긴장을 이용해 남한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정책을 지속하면 안된다. 대북 평화정책을 유지하고 평화 공존의 세계질서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최근의 테러에 의한 민간인의 죽음에 한없는 애도를 보낸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민의 73%가 보복전쟁에 신중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영국은 60%가 반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양심세력을 중심으로 반전(反戰)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은 세계를 전쟁공포로 몰아넣는 보복전을 중지하고 세계 평화에 복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의 위상을 지켜 보복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전북 기독인은 현 정부, 수구 정치권, 미국의 취하는 행동을 지켜볼 것이고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공존(共存), 공영(共榮), 평화(平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류구원의 역사에 일치함을 확신하며 세상의 평화 세력과 연대하여 반(反) 평화 세력과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 9. 27.

한국기독교장로회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유지비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해마다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외교통상부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용이 최근 수년간 해마다 7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97년의 경우 임금, 시설 등 직접지원비용이 3억 2,400만 달러, 부동산지원과 세금면제 등을 통한 간접지원이 3억 9,800만 달러 등 총 7억 2,1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미군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차지하고 있는 ******을 다 합하면 무려 39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은 연간 1,100여만 달러이고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는 연간 1억 3,800만 달러입니다. 미군은 지난 99년 한해에만도 21억 9,500만 달러에 달하는 간접적군사비를 받아먹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미군은 한국당국자들을 강요해 주한미군유지비의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직접 받아먹고 있습니다.

90년대 중엽부터 3억 달러 선을 넘어선 주한미군유지비는 97년에는 3억 6,3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올해에는 4억 4,000만 달러, 내년에는 5억 8,000만 달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주한미군유지비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받아내는 직접적군사비와 무료로 사용하는 군사기지, 시설비, 그 관리유지비 *****지원비 등 간접적군사비를 합치면 해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유지비가 3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국민혈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파탄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민중이 전혀 무의미한 그것도 해마다 무려 30억 달러를 넘는 막대한 미군유지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미군이 무엇때문에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겁니까. 미군은 저네들의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을 가로타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뿐 아니라 이 땅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하면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 온갖 치떨리는 만행을 연일 자행하면서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행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민중에게 해만 주는 침략자,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략군에게 주둔비로 해마다 무려 30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바친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필리핀에서는 지난날 미군으로부터 유지비를 해마다 적잖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경향각지 각계 민중들이 주한미군유지비분담을 반대하면서 미군철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유지비에 한푼도 뗄 수 없습니다. 내외 민중의 일치한 요구대로 주한미군은 당장 즉시 철수해야합니다. 각계 국민들은 주한미군유지비분담을 반대하며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하고 줄기차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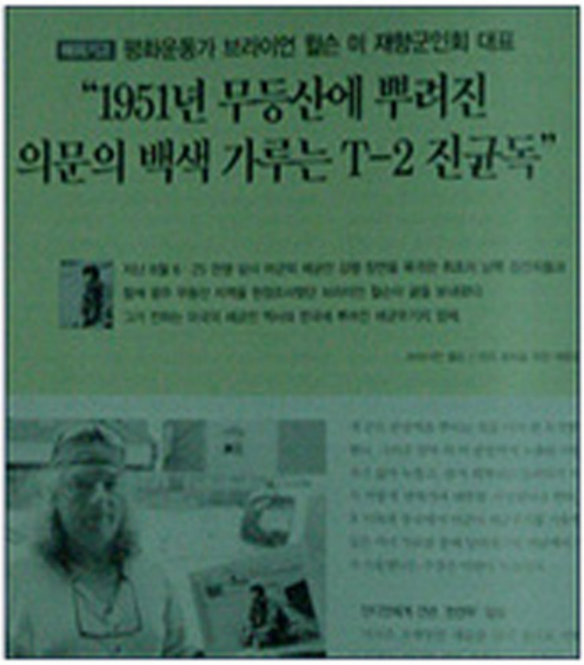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무등산에 뿌려진 세균, T-2독소≫

브라이언 윌슨 씨, ≪민족21≫ 기고문에서 주장




평화운동가 브라이언 윌슨 미 재향군인회 대표
"1951년 무등산에 뿌려진 의문의 백색 가루는 T-2 진균독"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무등산 일대에서 뿌렸다고 제기된 ≪하얀 분말액≫에 대해 ≪독성이 강한 T-2 진균독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무등산 일대에서 미군이 세균전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식적인 관련 문서를 토대로 주장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4차 국제조사단장 브라이언 윌슨(미 재향군인회 대표)는 ≪민족21≫ 10월호에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세균전 의혹≫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무등산 지역에서 살포된 물질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증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미흡하다≫면서 ≪역사적으로나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무등산에 살포된 것은 바로 출혈열 독소인 T-2 진균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러스성, 발진티푸스 병원체에 의한 질병 등을 연구한 미 극동사령부 406부대의 51년 8월호에 유행성 출혈열과 유사한 질병에 대한 연구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다≫며 ≪이 보고서는 전남에서 ≪하얀 가루≫가 뿌려졌다는 1951년 9월~10월 직전에 발간됐다≫고 말했다.

또 1951년 10월 미 합동참모본부장은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매튜 리지웨이 장군에게 실험적으로 한반도에서 제한된 규모의 세균전을 실시하라는 비밀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는 역사적 개연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6·25 당시 광주에서 나타났던 증상들은 가스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출혈열 감염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비행기 살포가 약품을 투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T-2독소는 ≪진균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40여개의 자연발생 독소인 트리코테센 독소 중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T-2독≫이라면서 ≪1891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하고 이 독소의 증상을 3단계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초기증상으로는 입, 혀, 목, 식도, 위가 타들어가고 2기에는 상태가 호전되어 짧게는 일주일에서 몇 주일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음 3기에는 피부변색과 함께 입술, 손가락 등의 세포가 죽기 시작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은 100%다.

윌슨 단장은 지난 9월 3일 세균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안양산(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당시 돈등마을) 등 현장조사에 나서 최초 제보자 정운용(74. 광주서구 화정동) 씨와 목격자 남성봉(78.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씨의 증언을 들었다.

전민특위 광주전남본부는 ≪T-2≫독소의 증상과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최초 제보자 정씨가 ≪재귀열병에 걸린 빨치산과 마을주민들은 감염 정도가 심할수록 온몸이 새까맣게 변색됐으며 심할 경우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소진해 죽어갔다≫는 증상이 일치해 의혹을 풀어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신 조사단장은 ≪관련 문서들이 미국방부의 일급 비밀문서로 묶여져 있어 확증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사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6월 정씨는 ≪51년 초가을께(3월이라는 주장도 있음) 무등산 자락인 규봉암 일대에 당시에는 ≪연습기≫(쌍엽기로 추정)라 불렀던 작은 비행기에서 하얀 분말액을 뿌린 후 계곡 물에 세수하거나 물을 마신 빨치산과 마을 주민들은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열이 나는 재귀열병에 걸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미군의 세균전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다.

2001/09/27

강성관 기자 rainbow@ohmynews.com

≪무기도입은 육 해 공군간의 나눠먹기식 흥정대상이 아니다≫

- 평통사, 8차 월례집회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이 결코 육. 해. 공군간의 나눠먹기식 흥정대상이 돼선 안 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는 27일 낮 12시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제8차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반대를 위한 월례집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국방부에 공격용 헬기 도입을 비롯한 무기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임종철 공동대표는 정치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고철덩어리인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나눠먹기식으로 낭비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육군 핵심 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승국(평통사) 정책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서울 에어쇼≫ 개최는 미국 무기 판촉행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에어쇼는 ≪첨단 무기의 환상과 전쟁에 대한 무감각성을 심어주는 장으로 이를 통해 무기를 강매하고 미국의 군수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 에어쇼≫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원(평통사) 공동대표가 항의서한 낭독하고 이를 임종철 공동대표와 박석분 총무국장이 국방부에 전달하는 동안 김성윤(평통사) 운영위원의 미국의 보복전쟁반대와 한국정부의 보복전쟁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정치연설이 이어졌다.

이번 집회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저지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온 평통사가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월례집회를 국방부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인 오늘로 변경해 개최한 것이다.

평통사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를 상대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기도입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방부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평통사, 좋은벗들, 민청노회, 서총련, 고대학생, 장기수 등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공격용 헬기 도입 저지≫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통일뉴스 2001-09-27
송정미 (jmsong@tongilnews.com)



미국의 전쟁놀음에 휘말리는 정부의 비전투요원 파병을 반대한다

1.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홍순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미국이 벌이는 소위 ≪테러 응징 전쟁≫에 비전투요원을 파병하기로 하는 ≪대미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상황에 따라 전투병력이 파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구체적인 지원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병 파병을 제외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결정이다.

2.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그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상식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미국 대참사≫에 대해 확실한 증거나 정황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아래 빈 라덴에게 그 죄를 씌워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명백한 반인륜적이고 상식이하의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3.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파병을 공언하는 것은 미국이 아프간에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떨게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원국까지 포함하는 제2의 대참사를 부를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는 것이다.

4.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힘을 우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군사 조치 또한 정당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근리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민간인을 살해한 죄인이다. 우리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는 미국의 전쟁놀음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단호히 반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01년 9월 2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전쟁반대 전국 553개 단체 공동성명발표

전국의 553개 사회단체에서는 미국의 전쟁을 통한 테러 보복과 우리 정부의 전쟁지원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를 9월 27일 오전 11시에 청와대와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사회단체들은 첫째 전쟁이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며 미국이 전세계를 향해 전쟁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세계를 전쟁위협 속으로 몰아넣게 되며 또 다른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불가피하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법에 따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둘째 김대중정부의 전정지원방침이 테러근절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세째 대 테러전쟁을 빌미로 군사력증강을 획책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네째 전국의 단체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번 성명은 부문과 지역을 넘어 전국의 553개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미국의 전쟁에 보복에 반대하고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쟁지원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연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기자 : 최지민 / 작성일 : 2001-09-27

테러와 전쟁 반대, 평화을 위한 전국 553개 단체 공동성명

전쟁과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세계가 애도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새로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테러를 전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며 이제야 말로 전쟁과 군사적 대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점차 커다란 물결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553개 단체는 이러한 세계적인 반전평화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전쟁과 전쟁 지원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결같은 뜻을 모아 미국과 한국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

○ 미국 정부는 전쟁을 중단하라

전쟁을 통해서는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테러와 무관한 많은 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쟁보복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세계에 양자택일 식으로 전쟁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세기를 다시 전쟁과 군사적 대립의 시대로 전락시킬 뿐이다. 보복을 위한 무력 행사와 민간인 살상은 국제법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테러의 주범을 찾아 처벌하고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외교적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테러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번 사건이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초강경 외교노선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성찰하기를 희망한다. 만약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 진지하고 모색하기보다 세계의 평화를 그 뿌리부터 위협하는 전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평화세력과 힘을 모아 저항할 것이다.

○ 김대중 정부는 전쟁 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전쟁과 더불어 전쟁 지원에도 반대하며, 미국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민간인 살상에 대한 우려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물자와 자금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을 지원하는 대신 테러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테러범 처벌 및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응당히 취해야할 태도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국제정세에서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한다

일본은 반 테러 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활동 범위를 전 아시아로 확대하고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미국이 공언하고 있는 전쟁 및 각 국의 전쟁 지원이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아직도 침략 행위를 미화하고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 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쟁이 아시아 평화에 미칠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쟁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미국 정부 또한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시아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의 큰 물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전쟁을 막고, 새로운 세기를 전쟁과 테러에서 벗어나게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척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반전평화의 기운을 일구고 세계적인 평화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2001년 9월 27일

테러와 전쟁 반대, 평화을 위한 전국 553개 단체 공동성명 참가단체



≪강원≫

강원민중연대(준),강원지역청년단체협의회,강원지역총학생회연합,민예총강원도지회,민예총춘천지부,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전농강원도연맹,전농강원도연맹춘천농민회,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철원군민중연대(준),춘천YMCA,춘천·홍천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춘천민주사회단체협의회,춘천사랑청년회,춘천여성민우회,춘천환경운동연합,통일을여는청년모임,화천군노동·농민연대(준)

≪경기/인천≫

(사)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가톨릭정평위,경기동부연합,경기민중연대(준),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경기빈민연합(준),경기여성단체연합,경인총련,과천환경운동연합,그린훼밀리평택지부,기독교목정평,다산인권센터,대우사태의올바른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대우자동차노동조합,민예총인천지회,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평택민중연대,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준),민주노동당의정부지부,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민주노동당평택안성지부(준),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경기도북부지부협의회,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민주노총평택지구협의회,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평택안성지부,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부평권리찾기선언운동본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성남시민모임,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여성회,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환경운동연합,시민문화센터,시흥환경운동연합,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안산환경운동연합,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여성의전화,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평택시민모임,의정부YMCA,의정부YWCA,의정부참여연대,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인천부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인천민중연합,인천상담연구단체협의회,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인천시민연대,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환경운동연합,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일사랑노동자회,일하는사람들의벗청년21,장흥환경운동연합,전농경기도연맹,참여민주주의실현을위한인천시민의정지기단,카톨릭청년연대,평택YWCA,평택노동자의힘,평택노동자회관,평택녹색소비자연대평택농민회,평택문화마당,평택민주노동자회,평택사람들,평택새물결청년회,평택성폭력상담소,평택시민아카데미,평택지역노점상연합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환경운동연합,평택흥사단,평화센터,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환경운동연합인천지부

≪경남/부산/울산≫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가톨릭여성회관,거제YMCA,거제환경운동연합,거창YMCA,경남대동문공동체,경남도여성농민회,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경남민중연대(준),경남여성회,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상대학교총학생회,경성대민주동문회,기독교노동상담소,김해YMCA,내일을여는청년회,노동자의집,노점상연합회,동구노동단체(준),동구주민회,마산YMCA,마산대용담동우회,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민사랑청년회,마창민주노동자협의회,마창여성노동자회,마창진교육공동체,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총련,마창환경운동연합,매구마당,민사랑청년회(준),민족예술인총연합울산지회,민주노동당마산시합구지구당,민주노동당마산합포구지구당,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민주노동당진주지부,민주노동당창원을지구당,민주노동당창원지부,민주노총경남도본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서부경남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부경범민련,부경총련,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노동자회,부산농민회,부산민족민주청년회,부산민중연대(준),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회,부산인권센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사천환경운동연합,사회당울산시지부,새날을여는청년회,새노리,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양민학살경남도대책위,양산노동민원상담소,여성노조마창지부,열린사회진주시민의모임,열린사회희망연대,용담동우회,울산YWCA,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울산노동자의힘,울산대학교총학생회,울산민주시민회,울산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울산여성연대모임,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참여연대,울산청년회

울산평등연대(준),울산해고자복직협의회,울산환경운동연합,육지희추모사업회,인제대민주동문회,전국소형어민총연합,전농경남도연맹,주한미군철수부산운동본부,진주YMCA,진주가톨릭상담소,진주사랑청년회,진주환경운동연합,참교육학부모회마창진지부,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부,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창녕환경운동연합,천주교마산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경남지부,통일자료실,통일촌,현대중공업노동자가족협의회,현장21,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흥사단울산지부

≪경북/대구≫

(사)맑고향기롭게대구모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날뫼터,대구KYC,대구YMCA,대구YMCA직원노조,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녹색연합,대구대민주동문회,대구시연맹,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한겨레정보문화센터,대구환경교육센터,대구환경운동연합,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민족문학작가회의대구지회,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반부패국민연대대구본부,

새대구경북시민회의,생명자치연대,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우리복지시민연합,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포항여성회,포항환경운동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희망의시민포럼

≪서울≫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그린훼밀리운동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독시민사회연대,기독여민회,기지촌여성과아이들의쉼터

'새움터',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들장애인야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자보,두레생태기행,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의료연합,범민련남측본부,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사회당,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새사





회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서울환경운동연합,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언론개혁시민연대,여성사회교육원,여성환경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원불교중앙청년회,원불교천지보은회,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전국중고등학생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의꿈너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군폭력희생자가족협회,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지구촌나눔운동,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평등노조이주지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인권연대,풀꽃세상을위한모임,한국YMCA전국연맹,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보육교사회,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살림공동체,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전남/광주≫

강진사랑시민회의,관현장학재단,광양YMCA,광양YWCA,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NCC인권위원회,광주YMCA,광주YWCA,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민족민주청년회,광주시민연대,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연합,광주전남개혁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나주사랑청년회,남총련,농민회광주전남도연맹,누리문화재단,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목포YMCA,목포YWCA,목포시정지기단,목포포럼,목포환경운동연합,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미래를여는공동체,민예총목포지부,새시대공단연합,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지부,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광주지부,순천YMCA,순천YWCA,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실업지원광주종합센터,양심수후원회,여수YMCA,여수YWCA,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영광사회운동협의회,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광주전남본부,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흥환경운동연합,전교조광주시지부,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전남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보성지회,진도사랑연대회의,참여와연대를위한광양시민의모임,참여와자치를위한여수시민모임협의회,참여자치21,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참여자치광산주민회,참여자치순천시민연대,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추모연대,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회,함께하는광주시민행동,해남YMCA

≪전북≫

경실련전북협의회,군산YMCA,김제민주연합,민주노총전북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새시대노동자회,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전북민중대회위원회,익산·군산노동자의집,익산참여자치연대,인권의정치학생연합,전국여성노조익산전주지부,전농전북도연맹,전보통신연대INP,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북민중연대회의,전북소비자고발센터,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시민운동연합,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평통사,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YMCA,전주YWCA,전주시민회,정읍민주연합,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흥사단전주지부

≪제주≫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준),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서귀포YWCA,전농제주도연맹,제주YM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민중연대(준),제주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여민회,제주인권지기,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

≪충남/대전≫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논산YMCA,당진참여자치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대전양심수후원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노동조합,대전참사랑일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몽양기획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민주화운동정신계승대전충남연대,밀수레,배재대민주동문회,보령참여자치연대,서산YMCA,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천환경운동연합,아산YMCA,아산시민모임,애국지사숭모회,연기사랑청년회,예산주민연대,유성민주자치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조국통일범민족대전충남연합,조치원YWCA,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아산통일연대,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포럼,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충청지역대학생총학생회연합,통일아리청년회,홍성YMCA

≪충북≫

민교협충북지부,민족무예청주경당,민주노동당충북지부(준),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생태교육연구소(터),역사정의실천협의회,음성사랑모임,일하는사람들,전농충북도연맹,전여농충북도연맹,제천환경운동연합,증평시민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청주KYC,청주경실련,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여성의전화,청주청년회(준),청주통일청년회(준),청주환경운동연합,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권공대위,충북민예총,충북민중연대(준),충북여성민우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총련,충주환경운동연합

≪총 553개 단체≫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2)

-통일의 훼방꾼 이회창-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반통일역적 이회창, 그는 과연 어떤 자인가 이회창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속대담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통일의 훼방꾼 이회창≫ 역시 오일 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전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엔 이회창의 대북관이라고 할까요,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통일의 앞길에 찬물만을 끼얹어온 반민족, 반통일 행적에 대해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오 일 : 이회창이 걸어온 행적을 들춰보면 ********통일문제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치를 한답시고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동안 이회창은 줄곧 악법을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이나 때려잡을 줄 알았지 온 겨레가 그처럼 바라는 통일을 위해서는 해 놓은 것이 없죠. 그리고 더욱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는 건 남북이 55년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통일잔치상에 침을 뱉고 남북공동선언이라는 ***할 대신에 흠집잡기, 깎아내리기로 일관했는데요. 신통히도 구전소설에 나오는 놀부처럼 말이예요.

사회자 : 그럼 이회창이 어떤 통일훼방꾼으로써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로써의 아성을 드러냈는지 구체적인 사실적 자료를 갖고 얘기했으면 합니다.

오 일 : 물론 이회창은 온 민족에게 통일의 ***** 4.8합의서가 발표됐을 때부터 모략적인 흠집내기와 입 삐뚤어진 소리를 해댔는데요.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4.8합의서의 채택은 온 겨레에게 화해와 협력, 통일대축제가 열리게 됐다는 기쁨과 환희를 안겨준 그런 그 민족사적 쾌거였죠. 그래서 온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냈고 언론들은 평화정착의 발판, 민족통일염원의 결실로 대서특필했어요. 헌데 유독 이회창만은 식혜 먹은 고양이상을 해 가지고 속 뒤틀린 소리를 해댔는데요.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 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악의에 험담을 늘어놨어요. 심지어 이회창은 2000년 4월 11일 충남 **지역 **연설에서 정상회담개최로 북한에 거는 ****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쳐서 청중들을 ***하게 했죠. 모략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 이게 어디 정치를 한다는 정치****야당총재라고 하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회자 : 그렇죠.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가 그 어떤 댓가나 반고 또 무엇을 뜯어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회창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를 입에 게거품을 물고 헐뜯다 못해 너절하게 돈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면 솔직히 정치인으로써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써도 어딘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고 이회창패거리들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제 아무리 막아보려고 발광을 했어도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의 막을 올랐습니다. 이회창은 여기에 더욱 기가 질려 이성마저 잃고 악에 받쳐서 돌아쳤죠.

오 일 :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 수뇌분들의 극적인 상봉, TV에 펼쳐진 꿈같은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눈물을 흘렸죠. 역사적인 2박 3일간을 평양시간에 맞추며 TV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헌데 이날 유독 이회창은 귀를 막은 채 뒤로 돌아앉아 손자들과 화투놀이를 했다니 이게 어디 통일하자는 사람의 작태인가 하는 거예요.

사회자 : 이회창의 심술궂은 반통일 작태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후 더욱 광기를 띄였다고 보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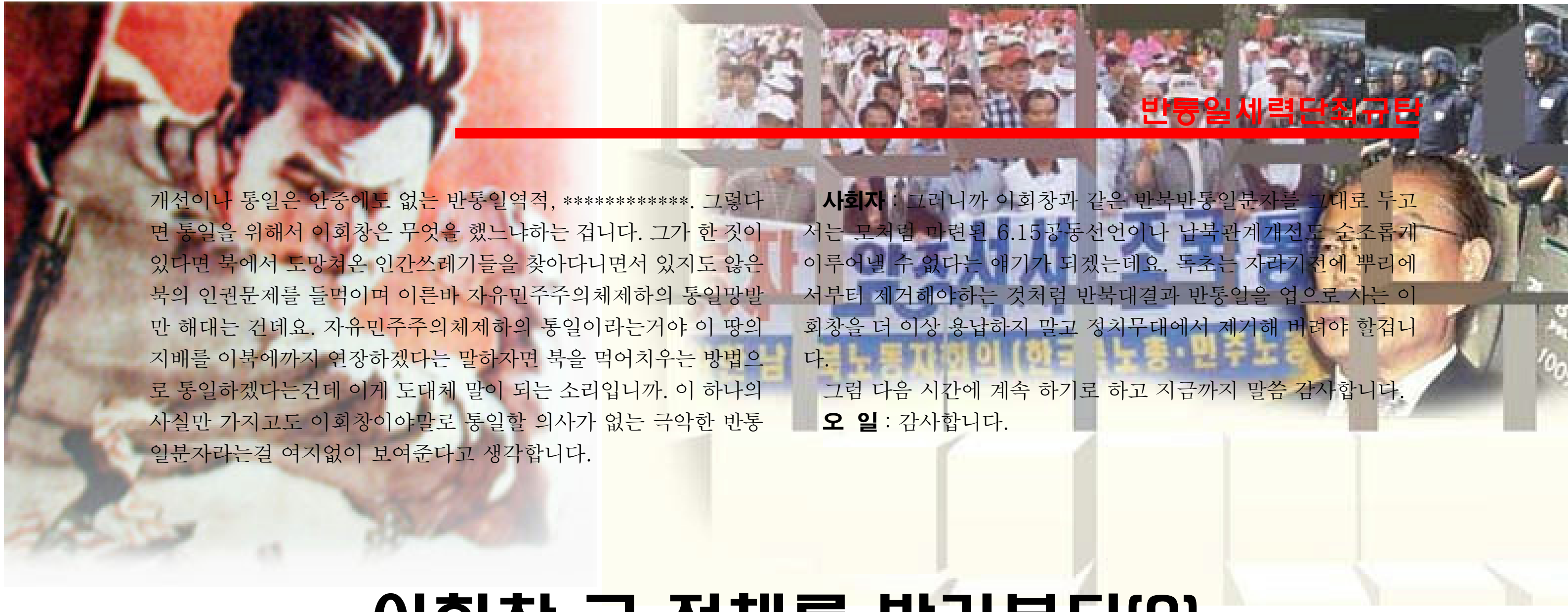
오 일 : 네, 그랬죠.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성업을 이룩하고 **********. 때문에 남과 북,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남북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 환영하면서 공동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애당초 4.8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을 달가와하지 않는 이회창패거리들은 공동선언에 기대와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느니 북의 적화통일의도를 받아들인 것이라느니 뭐니하고 입 삐뚤어진 험담을 해댔고 연방연합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연방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남북경협과 인도주의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외쳤고 비전향장기수 북송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연계돼야한다고 강짜를 썼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정말 ************************ 놀부의 그 추악한 행위 그대로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실행단계에 들어가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이회창패거리들이 놀아난 꼴은 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였습니까.

오 일 :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이 활발해지자 이회창이 북의 체제강화에 도움을 준다,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다, 한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서 남북신뢰와 화합의 장에 재를 뿌렸는데요. 이회창이 입을 떠벌일 때마다 떠드는 북한 퍼주기라는 것도 그래요. 북한 퍼주기는 현정권이 대북 지원을 벌이고 북에 무턱대고 퍼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지 못해 민중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건데요. 그의 주장은 실제와는 달리 과장됐어요. 퍼주기라는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언동으로 6.15선언을 백지화하려는 ** 정략적인 기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퍼주기하는 것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인데요. 군전력증강무기구매계획에 무려 30조원, 내년초로 예견된 차세대전투기와 차기대공미사일, 공군차세대공격용헬기사업 등에 10조원***데요. 미국에 주는 진짜 퍼주기는 문제삼지 않고 통일투자를 퍼주기로 왜곡해 민족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바로 북퍼주기론을 퍼뜨리는 이회창 패거리들이예요.

사회자 : 이회창패거리들이 통일에 역행해 얼마나 심술궂은 못된 짓을 했는가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온 겨레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 속에 임진각에서 경의선 복원공사 기공식이 있었죠. 이날의 기공식을 두고 세론은 그것이 비단 남북간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장 반백년 이상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잇고 나아가선 민족의 혈맥을 잇는 민족재결합의 시작이라고, 남북의 화해와 신뢰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평들을 했었죠. 그런데 유독 놀부 심보를 가진 이회창패거리들만을 기공식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안방에 들어앉아서 이른바 성명이라는 걸 내고 전시성 행사니, 북의 침습이니 대북방어수준약화니 하는 따위의 헛나발을 불어대면서 훼방을 놓았죠.

오 일 : 50년이 넘도록 막혔던 하늘길이 열린데 이어 바닷길이 열리고 땅길이 열려져 그것은 곧바로 통일의 길로 잇닿아 있다는게 **인데요. 이회창패거리들은 뭐가 못마땅해서 그런 야단지랄을 하느냐 하는거예요. 지금 항간에서는 이회창 패거리들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반통일역적, ************.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이회창은 무엇을 했느냐하는 겁니다. 그가 한 짓이 있다면 북에서 도망쳐온 인간쓰레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망발만 해대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라는거야 이 땅의 지배를 이북에까지 연장하겠다는 말하자면 북을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건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이회창이야말로 통일할 의사가 없는 극악한 반통일분자라는걸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이회창과 같은 반북반통일분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모처럼 마련된 6.15공동선언이나 남북관계개선도 순조롭게 이루어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독초는 자라기전에 뿌리에서부터 제거해야하는 것처럼 반북대결과 반통일을 업으로 사는 이회창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정치무대에서 제거해 버려야 할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3)

-친미사대부 이회창-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반통일역적 이회창, 그는 과연 어떤 자인가 이회창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속대담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친미사대부 이회창≫ 역시 오일 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네, 전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친미사대매국노로써의 이회창의 정체를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회창의 애비인 이홍규가 일제를 칭송하며 그의 날개 밑에서 기생한 친일주구였다면 그 아들 이회창은 상전을 바꾼 미국을 제 할아비처럼 여기고 그의 보호를 받아 잔명을 부지하는 특등친미분자라고 하겠는데요.

오 일 : 네, 한국의 역대 통치배들이 그러한 것처럼 대권을 꿈꾸는 이회창 역시 친미사대가 골수에 찬 친미분자입니다. 이회창의 알량한 경력을 들춰보면 그는 60년대말 7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하바드대를 순회하면서 벌써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광신자가 됐는데요. 미국의 보호와 비호 없이는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걸 잘알고 있는 이회창은 이때부터 자기 애비가 일제를 숭상하듯이 미국을 신주 모시듯 했는데요. 그의 친미사대적 본성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노골화, 표면화됐죠. 마치 구세주나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 그럼 이회창의 친미사대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하는데 우선 얘기가 돼야 할건 미국정계에서 조차 한반도에 조성된 화해와 평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규탄배격하고 있는 부시정권의 그 대북강경정책을 이회창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오 일 :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핵전쟁의 발화점, 신냉전의 열핵지대로 전변되고 있어요. 부시행정부는 세상에 마각을 드러내자마자 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북을 고립압살시키지 못해 야단지랄이죠. 그 대표적 예로써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론을 들수 있는데요. 북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에 대응한 전력증강, 나아가서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한다면서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북의 상용무력까지 감축하라는 강도적**를 주고 있어요.

사회자 : 말하자면 북을 보고 바지까지 벗으라는 얘긴데요. 강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북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한 부시행정부의 이 같은 책동으로 인해서 좋게 발전하던 북미관계는 냉전시기로 되돌아가고 북미간의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죠. 이건 자연히 남북관계개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반도 정세가 오늘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된 주되는 원인은 전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미사대주의가 골수에까지 들어찬 이회창일당은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대북강경정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엄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 일 : 네, 그렇죠. 한마디로 이회창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서 앵무새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부시행정부가 ≪아≫하면 ≪아≫하고 이 상전이 회초리를 들라면 한술 더 떠서 몽둥이를 드는 것이 바로 이회창의 대미관입니다. 부시정부가 북에 대한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떠들면 이회창은 ≪일방적양보불가론≫, ≪철저한 검증≫, ≪거울같은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외쳐대는가 하면 심지어는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그런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동족을 고립압살시키지 못해 안달이나 하는 ***그의 장단에 춤을 추는 이회창은 능히 동족이기를 그만둔지 오랜 민족반역아라고 할 것입니다. 이회창이 얼마나 지독한 친미사대부인가 하는 건 부시행정부가 내놓은 것이 설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신냉전을 불러일으키는 거라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덮어놓고 지지환영하고 있는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시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가 그런 것들 중의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적인 나라들, 특히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패권을 쥐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우주 미사일 공격망을 구축해서 군사전략적 우위로 새로운 초대국과 지역강국들의 출현을 막고 저들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공략하려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이 같은 책동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냉전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은 여지없이 ***잖아요. 때문에 미국의 동맹회원들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력히 반대배격하고 있는겁니다.

사회자 : 그렇죠. 그런데 이회창패거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은 위험국가들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그를 적극 찬양하는거 아니예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근 30년간이나 유지돼온 에이비엠, 즉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을 파괴할 것을 제창하는 미국의 책동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해 나섰습니다. 이 협정은 핵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방패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집권



자들은 이른바 시대변화를 운운하면서 그것을 수정파괴해서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회창이 이걸 지지해 나선건 친미사대주의자로써의 정체를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낸 또 하나의 만고대죄라고 할겁니다.

오 일 : 이회창이 그런 친미사대분자이기에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했고 지금 주한미군의 철수를 운운하는 것은 **한 일이라고 쓸개빠진 소리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특등 친미사대분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망발이죠.

사회자 : 네, 그렇죠. 그야말로 친미주구다운 망발입니다. 우리 국민이 항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운 속에서 언제나 불안한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게 누구 탓입니까. 주한미군이 장장 반백년이 넘도록 이 땅에 버티고 서서 온갖 못된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 일 :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란 도대체 뭐예요. 그들이 이 땅을 타고 강점한 짓이란 6.25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덮씌우고 민족의 숙원인 자주민주통일을 가로막고 온갖 살육만행을 자행해온 것뿐입니다. 또 그들이 한 짓이 있다면 생태환경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온갖 퇴폐적인 양키문화를 유포시켜서 사회악을 가중시킨 것뿐입니다. 주한미군이야말로 우리 민족, 민중에게 백해무익한 존재일 뿐 아니라 이 땅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침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에서 주한미군은 어떤 우방군도 아니라면서 하루빨리 제집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회창이 주한미군철수를 한사코 반대하고 *****하니 세상에 이런 친미사대부가 또 어디 있겠는가하는 겁니다. 그런 친미사대부이기에 이회창은 저들의 대북정책이 대통령으로부터는 평가절하돼 왔지만 부시대통령을 통해 제대로 평가받았다고 못내 기뻐했다는데 과시 친미주구다운 역겨운 추태라고 할겁니다. 한마디로 이따위 친미주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개선이나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얘기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4)

-부도덕과 부정비리의 능수 이회창-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반통일역적 이회창, 그는 과연 어떤 자인가 이회창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속대담 ≪이회창 그 정체를 발가본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도덕과 부정비리의 능수 이회창**≫ **역시 오일 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전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이회창의 부도덕과 부정비리로 얼룩진 정체와 관련해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회창이 걸어온 행적을 들춰보면 우선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이 지녀야할 가장 초보적인 체모조차 갖추지 못한 저능아다 이렇게 말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 일 : 네, 그렇죠. 방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회창은 정치는 고사하고 인간이 지녀야할 가장 초보적인 도덕마저 없는 인간추물이라 하겠죠. 이회창이 걸어온 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년전 그가 경기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였어요. 이회창이 어떻게나 색에 미쳤던지 10대의 나이에 벌써 많은 여학생들을 희롱한 나머지 동료들의 *****.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된 온 집안은 야단법석이였는데요. 그때 누구보다도 대노한 건 애비 이홍규였어요. 그는 ≪애이놈아 가문을 망신시켜도 분수가 있지. 아직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에끼 뭐냐. 이 집에서 썩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회창은 그날부터 집에서 쫓겨나 방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는 겁니다.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이회창은 그후 공군법무관 판사시절에도 그따위 추잡한 주색으로 세월을 보내 여론의 초점으로 됐다는 겁니다.

사회자 : 이회창은 벌써 어릴때부터 **생활이 너절하고 도덕관념이란 털끝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인간추물이죠.

오 일 : 인간추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간퇴물이라도 그런 인간퇴물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회창이 지난해 있은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만 보죠.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에 있은 남북이산가족상봉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결과물로써 내외가 다 환영의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산가족참가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이산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했어요. 헌데 이회창은 어떻게 했어요. 남북이산가족상봉으로 온 강토가 감격으로 끓어번지고 있을 때 이회창만은 이른바 민생탐방을 한답시고 인천***농촌봉사활동***마치 민생에 관심이라도 있기나 한 것처럼 **돌아쳤는데요. 그건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였죠. 그 사람이 민생문제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북의 혈육들이 서로 만나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는 극적인 이 장면을 외면하고 민생현장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회자 : 네, 남북이산가족상봉은 정치 이전에 도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외에서는 이산가족상봉장면을 고의적으로 외면한 이회창을 두고 인간이 아니라면서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던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대북 쌀 지원마저도 한사코 반대해 나선게 이회창패거리들이 아닙니까?

오 일 :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북에서는 최근 수년간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서 쌀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마땅히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으로써 얼마간의 식량지원을 하는 것도 옳은 처사라고 봐요. 이건 정치이전에 인륜에 대한 문제로써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헌데 이회창은 상부상조하는 조상전례의 미풍양속은 고사하고 동족을 도와주는 일마저도 상호주의에 걸어 훼방을 놓았는데요. 이런 자를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말이예요.

사회자 : 정말 그렇죠. 동족끼리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서로 도와주는 일은 인도적인 차원이지 결코 상호주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주어야 한다는 식의 장사꾼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장사꾼들 끼리나 통할 수 있는 상호주의를 들고 나와서 대북 지원에 제동을 거는 걸 보면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없는 무뢰한이죠.

오 일 : 이회창이 정치는 커녕 인간이 지녀야할 초보적인 예의도



덕마저 없는 무뢰한이라는 건 97년대선 때에 있은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회창은 기자들에게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기사를 쓴다고 ≪창자를 뽑아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등 입에 담지 못할 쌍스러운 욕을 마구 퍼부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자 : 그래서 기자들 속에선 ≪창자론≫, ≪씨말리기론≫, 그 뒤에 있은 ≪도끼론≫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몰락한 미국대통령 닉슨을 보십시요.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도청이라는 범법행위보다 거짓말한 도덕적문제가 더 큰 죄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끼리도 언어사용은 그 사람의 품격을 판단할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입에서 구렁이가 나가는지 뭐가 나가는지도 모르게 마구 늘어놓는걸 보면 이회창은 확실히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 일 : 하기에 항간에서는 이회창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회창은 무서운 사람, 이회창은 가차없는 보복과 인간적 신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내에서도 귀족적이다, 차갑다, 독하다 이렇게 평들을 하고 죽여버린다, 토막쳐버리겠다 이런 추악한 말을 떼어놓고는 이회창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런 몰지각하고 무지막지한 자가 대통령감투를 써보겠다고 하니까 한국에 인물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비통감마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예의도덕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부정비리에서도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능수다 이건데요.

오 일 : 그렇죠. 이회창의 경력을 들춰보면 그의 행적 중에서 오랜 기간을 법관으로 지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이른바 원칙주의자, 법치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회창의 이면을 캐보면 뒤가 지저분하고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서 청렴결백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는 법치를 부르짖으면서 뒤에 앉아서는 부정비리를 시종 떡 먹듯 하는 것이 이회창이라 하겠는데요. 큼직큼직한 사건만 놓고 봐도 국세청의 대선자금불법모으기, 안기부자금횡령사건 등 그의 부정비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봅니다.

사회자 : 아들을 군에 안보내고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선, 총선 때마다 기업인들로부터 엄청난 액수를 받아 챙기고도 시치미를 떼는 이회창의 행위는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옳을까요. 뭐 그렇게 하고도 부정비리 얘기만 나오면 당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라고 야단 지랄인데 이건 도둑이 제 발이 저려서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하겠죠.

오 일 : 한때 떠들썩했던 안기부자금횡령문제만 봐도 그렇지요. 이 사건은 95년 총선 당시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900억원을 조성해 이중 500억원을 신한국당 총선자금으로 쓴 그런 사건인데요. 불법전용한 안기부자금은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였던 강삼재가 모두 관리했는데 그는 183명에게 나누어주었죠. 이건 당시 선대위의장이였던 이회창의 묵인 내지 비호하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회창은 시치미를 뗐을 뿐 아니라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보복은 보복, 피는 피를 부른다면서 도전해 나섰던 겁니다. 이회창은 바로 이렇게 철면피한 자입니다.

사회자 : 그러면서도 이회창은 자기만이 원칙이 있고 청렴결백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이회창에게 원칙이 굳이 있다면 그건 정의의 원칙이 아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원칙, 대권을 겨냥한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죠.

오 일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언론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이회창이 놀아나는 행태를 보십시요. 이회창은 국세청의 합법적 언론세무조사마저 언론죽이기로 몰아붙이면서 수구언론을 비호두둔해 나섰는데요. 지난 6월 국회연설에서 탄압받는 언론이 있다면 우리 당은 함께 싸우겠다며 지랄발광했는데요. 앞에서는 초당적인 원칙을 부르짖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반공매문지와 손잡고 자기만을 위한 원칙을 부르짖는 자가 다름아닌 이회창입니다. 하기에 이회창은 오랫동안 당을 운영해온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원칙, 원칙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얌전한체 하는 사람이 뒤로 호박씨를 깐다구요. 이회창이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외쳐대지만 그 사람의 뒤가 더 지저분하다니까요. 이제 내 일만 터져보지요. 이회창의 부정비리를 쫄딱 발가놓고 말거라구요.≫**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흑막속에 가려진 이회창의 부정비리는 시간문제이지 조만간에 낱낱이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회창의 부도덕과 부정비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 또 얘기 계속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한국판 메카시즘소동

-재야언론인 김기성씨의 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구국의 소리≫방송의 오늘의 연단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재야언론인 김기성 씨의 글 ≪한국판 메카시즘소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 씨입니다.

남과 북 사이의 화해협력분위기가 높아가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극우냉전수구세력이 대결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온통 남북대결 선풍이다. 이것으로 해서 한국사회가 뒤흔들리고있다. 국민이 분노하고 정계가 아수라장이 되고 우격다짐과 남을 물어뜯는 소리만이 요란하다. 증오와 공포의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반통일세력이 몰아치는 남북대결의 광풍을 보느라니 반세기전 미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메카시즘소동≫이 떠오른다.

메카시즘은 반공선동으로 악명을 떨친바 있는 미국회상원의원이였던 메카시의 이름을 딴 사상이나 체제이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는 1950년 2월 어느 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미국정부기관들의 중추적 기구에 205명의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가 잠복해있고 미국사회의 각 부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미국사회를 반공경련과 발작상태로 몰아넣었다. 메카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 대통령인 트루만과 당시 대통령이였던 아이젠하워도 빨갱이의혹이 있다고 떠들었다. 반공분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메카시를 영웅시하면서 차기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 그의 조작된 주장과 모략, 날조로 1,450여명의 공직자들이 직위에서 해임, 추방되고 미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반공대결광풍이 미국사회를 휩쓸었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기에 내외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던 메카시즘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한국사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한국판 메카시즘의 주인공은 단연 이회창이다. 시기가 다르고 무대가 다를 뿐 그 대결소동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메카시가 반공과 적색공포증을 부채질해 미국사회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면 이회창은 남북대결과 색깔론으로 이 땅을 대결의 난무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회창의 남북대결소동은 8.15광복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더욱 광기를 띠었다. 평양의 통일축제가 성과리에 진행된 것이 너무도 배가 아파 복통이 터질 지경이였다. 그는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평양통일축제장에 대해 선전장이니 뭐니하며 악담을 퍼부었는가 하면 무슨 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남북대결광풍을 일으켰다.

남북대결에 환장한 이회창패당은 이성을 잃었다. 방북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에게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폭침을 가한 것도 부족해 비위에 거슬리는 인사들에 대해 조준사격을 해댔다. 먼저 동국대 강정구교수가 그들의 직격탄에 맞고 쓰러졌다. 족쇄를 차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제는 일제사격이다. 무리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혈이 낭자한 상태이다. 그 사격소리는 국회마당에서도 들려왔다. 자지러지는 총소리에 남북대화를 맡아오던 장관의 목이 떨어지고 정국이 수라장이다. 총소리에 놀란 정치철새들이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기도 했다.

이회창을 필두로 한 냉전수구세력은 저들의 남북대결의 총소리가 몰아온 효과에 쾌재를 올렸다. 이회창 냉전수구세력의 남북대결의 광풍은 거기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민족적 언론기관과 매문가들을 동원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됐다. 미국 출판업계의 제왕이라던 저프와 타임라이프출판사의 총수 젠리루쓰와 결탁해 극우반공선풍을 일으키던 메카시를 그대로 연상케한다. 한국의 메카니스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색깔론을 외치며 남북대결에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한 악마적 선동가에 놀아난 미국사회를 보는 것만 같다.

그러면 미국사회를 휩쓴 메카시즘과 이 땅에 남북대결광풍을 몰아오는 한국판 메카시즘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에는 사회주의사상과 이념이 동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갔다. 그러나 미국이 내드는 의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들었다. 미국의 피해망상증, 위기의식이 발작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메카시즘이다.

한국판 메카시즘이 나오게 된 환경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이북의 위상과 관련된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북으로 쏠리고 있다. 절세위인을 모신 북의 사상과 정치에 매혹되어 지난날 북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던 서방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북과의 관계개선을 요청하고 국교를 맺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고위정치인들이 북으로 찾아가고 있다. 이북의 사상과 정치, 민중영도방식은 그 나라들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이 땅에서도 북에 대한 동경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남 민중은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 영도자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열의에 넘쳐 있다. 이와 반면 민족의 영구분열과 남북대결만을 추구하는 이회창은 내외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국민은 물론 한나라당내에서도 반이회창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병에 환장한 이회창은 위구를 느꼈다. 이회창 패당은 설자리를 잃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회창패당은 한국판 메카시즘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것은 이회창패당의 대권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이다. 이회창은 차기대권을 장악하기 위해 민족, 민중을 경시하고 사대매국에 더욱 환장이 되고 있다. 민족분단과 남북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자주통일로 가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 한국판 메카시즘소동을 일으키는 저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권욕에 환장이 되어 남북대결소동을 일으키는 한국 메카니스트 본당이 갈 길은 과연 어디인가. 그것은 미국의 메카시가 간 그 길이다. 차기대통령후보를 꿈꾸던 메카시는 1954년 12월 미국의회의 징계를 받고 정계에서 쫓겨났다. 좌절 끝에 그는 그때로부터 3년만에 나이 50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이회창의 말로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의 메카시즘소동은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만고죄악으로 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역사와 민족은 결코 이런 반역아를 용서하지 않는다. 각계 민중은 시대의 오물인 이회창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검찰이 창원대 총학생회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최근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창원대 총학생회장 성모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성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한총련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에서 제작한 9기 한총련대의원자료집 등 14건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를 희세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걸어 체포하는 용납못할 파쇼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겨레의 민주민권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한총련 자체를 말살해보려는 엄중한 책동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선진사상을 따르며 연구 보급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더욱이 식민지파쇼사회에서 민중의 존엄과 자주권, 민주주의적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이 선진사상을 따르며 그것을 연구 보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들이 옳은 것을 함께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 될수는 없는 것이며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좋게 발전시켜 통일의 문을 열자면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은 성모씨의 의로운 행동을 범죄시해서 체포한 것은 저들이야말로 철학도, 정치이념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정치깡패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았습니다.

경찰당국이 이번에 창원대 총학생회장을 체포한 것은 한총련을 말살해 한총련소속 학생들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벌이지 못하게 하려는 데도 그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이 자유로운 통일운동을 하고 남북관계를 좋게 발전시켜 나가자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되어 있는 국보법이 그대로 존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이 국보법을 개정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건 바로 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당국은 오늘 겨레의 통일지향과 국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국보법을 즉시 철폐해야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에 나선 한총련소속 학생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파쇼악법에 걸어 부당하게 체포 투옥한 모든 학생들과 통일애국세력들을 조건 없이 무죄석방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죄악의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통일애국세력들은 국보법폐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투쟁을 계속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 민족통일대축전 구속자 석방기금 마련 통일연대 후원의 밤 및 후원주점 보고



≪후원의 밤 보고≫

9월 27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7시부터 진행되었던 2001 민족통일대축전 구속자 석방기금 마련 통일연대 후원의 밤이 각계의 성원 속에 성대히 치루어졌습니다.

후원의 밤은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자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이신 명진 스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후원의 밤에는 구속자 가족이신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 연합의장님의 이영자 사모님과 강정구 통일연대 정책위원장님의 노재열 사모님,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의 어머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민가협, 자통협, 유가협을 비롯하여 통일연대 소속단체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서 자리를 빛내주시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의장님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자들의 갔던 길의 정당성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한청 의장님 옥중편지글과 동국대 학생의 강정구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글 낭독이 있었으며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7개종단)의 종교인 평화협의회 변진흥 사무총장님의 찬조사가 있었으며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차원에서도 후원의 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의 공연,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님의 닫는 말씀과 학생들의 선창으로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함께 부르며 후원의 밤을 마쳤습니다.

각계가 함께 한 후원의 밤 행사는 구속된 동지들을 생각하며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결의를 비롯하여 반통일수구세력의 희생자가 되신 구속자들을 생각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결의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후원주점 보고≫

동국대 사회학과, 동국대 투쟁본부의 헌신적 활동으로 2001 민족통일대축전 구속자 석방기금 마련 통일연대 후원주점이 동국대학교 혜화별관 옆에서 늦은 4시부터 각계의 후원과 지지속에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주점에는 강정구 교수님의 노재열 사모님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어르신들, 통일연대 소속단체들이 미리 찾아와 방문하셨으며, 동국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동국대학교 동문들과, 그 외 서총련 학생, 한청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9월 26일자로 강정구 교수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동국대 투쟁본부의 천막농성이 마무리하고 9월 27일 후원주점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투쟁의 결의를 더욱 드높였습니다.

늦은 10시부터 집중시간을 가져 방북활동의 영상을 담은 영상물 상영, 동국대 문예단과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들의 흥겨운 문예공연, 동국대총학생회장님의 투쟁총화발언과 천리마의 흥겨운 공연, 통일연대 사무차장의 이회창 한나라당 조선일보 규탄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의 결의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절단 7인을 억지춘향식으로 구속시켰던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 후원주점 진행 중에 학교 밖을 나가던 총학생회집행부와 단대 회장님이 연행되어 후원주점에 참가하였던 분들이 분노가 드높아 후원주점을 마치고 규탄집회, 그리고 중부서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전 현직 동국대학교 한총련 대의원의 연행으로 분노의 마음을 안고 행사를 마무리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민족동국 대의원 불법연행과 관련한 구국단국 총학생회 규탄성명서



언제까지 이 땅의 청년학생들을 범죄자로 만들것인가?
언제까지 이러한 반인권적인 작태가 자행되어야만 하는가?

얼마 전 우리는 미국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가 자행된 이후 테러에 대한 보복전쟁 운운하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는 부시 불끈 쥔 두 주먹에서, 아랍인 소년의 절규 속에서 전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안아오기 위해서 굳세게 싸워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계기 되었다.

또한, 미국의 MD정책의 강행과 반통일보수세력들의 6.15공동선언 흠집내기에 다시한번 공동선언을 사수하고, 투쟁하는 것은 전민족적인 요구에 비추어 보나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데서 지극히 정당한 일이 된다.
이렇듯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실현하려는 조직이 이적단체로 간주되어 대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가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언어도단에 다름 아니다.

구국단국은 6.15공동선언 실천! 통일방북성사를 위한 3회 통일체전, 통일한마당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민족동국 대의원 불법연행과 관련한 분노에 찬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한총련 대의원은 과연 누구인가?
매년 학생회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이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와 민족과 민중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실천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총청총련 의장, 동총련 의장과 계속적인 대의원 연행을 자행하는 등 일련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때, 공안당국의 반통일행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며칠 전 진행되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보여지듯이 6.15공동선언의 활력과 정당성으로 인해 남북은 이제 자주통일의 대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분단과 냉전에만 사로잡혀 법원에서도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는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해서 걸고들면서 한총련의 애국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불법, 폭력적으로 우리 대의원들을 연행해 가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행각이다.

이번 민족동국 대의원 연행등 최근 일련의 한총련 대의원 연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국단국은 동지적 의리를 다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한총련 대의원 연행을 우리 구국단국 총학생회는 7천만 민족과 역사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반통일세력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힘차게 싸워갈 것이다.

공안당국은 연행 대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 대의원 다 잡아가는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공동선언의 걸림돌 반통일세력 끝장내자!

백두한라로 이어지는 일만의 함성 구국단국 33대 자주적 총학생회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기자회견문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요즘 날씨도 매우 쌀쌀한데 계절 맞는 옷은 입고 있는지? 끼니는 굶지 않고 몸은 건강하느냐? 집 떠난 지 6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이 엄마는 6년이란 세월동안 참 많이 울었단다. 내 아들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매일 기다림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단다. 이번 추석에도 또 너 없는 이 명절을 보내야 하니. 허전한 마음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구나. 언제나 우리 네 식구 밥상 앞에 모여 앉아 조기 한 마리 구워 오손도손 밥 한 번 먹어보나...≫ −한 어머니가 수배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발췌−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도 빚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 웃음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나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 · 자식간의 정, 형제간의 정을 나눌 때 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과 한숨으로 추석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한총련 가입 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배자가 되어 집을 찾지 못하는 한총련 대의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다. 한총련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명절도 어두운 그늘을 찾아 헤매야 하는 청년학생들이 수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집을 바로 지척에 두고서도 6−7년 동안이나 가족들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장기 수배자들도 꽤 많은 수에 이른다.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김준배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우리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김준배 열사 의문사 중간조사 결과를 접하며 다시 한 번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97년 당시 13층 아파트에서 케이블 선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했다던 김준배 열사가 프락치 공작, 계급 승진에 눈이 먼 보안수사대 형사들의 무자비한 구타와 폭력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그 진실을 밝혔다. 고 김준배 열사가 사망했던 날은 97년 9월 16일, 바로 추석날이다. 김준배 열사의 부모님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애쓴 것이 죄가 되어 수배자 몸이 된 아들과 수년째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없는 것도 가슴 아픈데, 공안당국의 마녀사냥에 의해 아들이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는 것이 소원이었던 부모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던 한가위날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을 붙잡고 울고, 울고 또 울어야 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1년 9월, 우리는 아직도 제2, 제3의 김준배가 나올 수 있는 현실을 살고 있음이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애국 청년학생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이적규정이 아직도 살아 남아 대학의 대표자들을 수배자로 내몰고 있으며, 공안당국의 검거 소동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보수대 형사들이 통일대동한마당 뙴박질 대회에 참가한 조선대 인문대 학생회장 이종옥 학우(영문.4)를 백주대낮에 강제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 또한 김준배 열사를 죽여 놓고 ≪단순추락사≫로 속여 전국민을 우롱했던 검 · 경은 사인진상이 밝혀졌음에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한총련 대의원 검거에 더욱 혈안이 돼 날뛰고 있는 공안당국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통일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7천만 겨레는 통일대행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족의 절반인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애국 통일인사를 감옥으로 내몬 ≪국가보안법≫이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는 것은 코흘리개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백만 대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해 그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백만 대학생 전체를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범법자 취급하는 한총련 이적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이미 사회적 합의를 상실한 비상식적인 법 조항을 들이대 한총련 대의원을 연행 ·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순간까지 무언가 말할려고 했다던 고 김준배 열사가 진정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부당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여 더 이상 자신과 같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청년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말이었을 것이다. 김준배 열사의 한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대의원들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정부당국에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공안당국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날까지 무고한 한총련 대의원들을 검거 · 연행하려 했을 시에는 남총련 10만 학우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하라!
2. 6.15공동선언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
3. 김준배 열사의 사인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0기 남총련



9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
8기 충청총련 의장 연행 규탄 성명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가!

공안당국은 반통일적, 반인륜적 탄압 중단하고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24일 밤 11시 35분. 9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이자 대의원인 8기 충청총련 의장 충남대학교 박찬영 총학생회장(사범, 94)이 천안 톨게이트에서 연행, 구속되었다. 이미 충남대 학내에서는 사찰을 벌이는 듯한 상황이 수 차례 있었고, 지난 8월에는 프락치로 보이는 사람이 학생회관에서 서성거리다 발견되어 학생들에게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번 충청총련 의장의 연행 또한 학내사찰을 통해 학교 밖으로 나가는 박찬영 의장을 미행한 후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폭력 연행해 간 것이 분명하다.

지난 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 땅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고조되고 통일의 열망이 치솟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찰, 경찰 등 공안당국은 반통일적 행각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9기 한총련 대의원들은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조국의 청년학생으로서 외세에 의한 지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사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여 이 땅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착취와 억압을 받지 않는 자주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도 안락도 버리고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애국 청년학생들이다.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한 것이 죄라면 도대체 검찰과 경찰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 보안법이란 것은 어느 국가를 보안한다는 법이란 말인가! 민족을 위해 활동을 하면 이적행위이고 억압과 착취에 맞서 저항하면 폭력이라 하는 검찰과 경찰은 분명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고 하는 미국 놈들의 앞잡이 이며, 국가보안법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독약과 같은 악법인 것이다.

남북 두 정상이 평양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얼싸안으며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힌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미 우리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었다. 그동안 얼마나 이남 민중들이 거짓과 음모 속에 농락 당하고 속아왔는지 모든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조국통일로 향하는 7천만 민족의 거세찬 물결을 악법과 탄압으로 막으려 한다면 한줌도 안 되는 반통일 세력들에게 차려질 것은 바로 민족의 철퇴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공안당국이 이렇듯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최선두에서 이행하는 한총련 대의원을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폭력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반통일 세력의 폭력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안당국에 경고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한총련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이 땅 청년학생들의 신념과 의지는 결코 가둘 수 없다. 또한 반통일 행각을 아무리 자행하더라도 전 민족의 통일열망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더 활활 타올라 너희들을 휘감을 것이다. 공안당국을 비롯하여 반통일 세력들의 책동을 전 민중과 함께 투쟁으로 박살낼 것이다. 착하고 성실한 수 백 명의 아들딸이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만으로 민족의 명절인 추석날 집에도 오지 못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중의 분노는 핵폭탄 보다 더 무섭게 터져 나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9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회는 구속된 박찬영 충청총련 의장에 대해 동지애적인 의리를 다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검찰과 경찰당국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1. 조국통일 가로막고 애국학생 잡아가는 공안기관 해체하라!
1. 반통일악법, 반민주악법 이 시대 최고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애국단체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부당하다. 즉각 철회하라!
1. 한총련에 대한 탄압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9월 29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중앙상임위원회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불법연행에 대한 대전충남통일연대 성명서

공안당국은 시대착오적이며, 반통일적 한총련 탄압 중단하라!
공안당국은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죄없는 학생을 잡아가두지 말고 박찬영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24일 밤 천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복경찰들에 의해 충청총련 의장(박찬영 충남대 총학생회장)이 불법연행되었다. 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이하 한총련)이 김영삼 정권에 의해 좌경, 용공의 올가미를 쓰고 이적단체가 되어 매년 수백 명이 연행 및 구속을 당한지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한총련은 87년 군부독재를 불사르고,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노래했던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 졌던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조직적으로 발전시켜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백만 대학생의 전국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등록금 문제 해결에서부터 매년 수천명이 참여하는 농촌활동, 94년 쌀수입 반대, 95년 전두환 노태우 처벌, 96년 대선자금 공개, 97년 한보비리 진상규명, 98년 IMF신탁통치 반대, 99년 미국의 전쟁반대, 2000년 양민학살 진상규명, 2001년 6.15공동선언 실현 등 시대의 요구 앞에 청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그러나 김영삼 매국노에 의해 부당하게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아온 한총련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 통일을 이루어야 할 관계로 발전한 지금에 와서도 이적단체의 올가미에 씌여, 정당한 활동이 이적시 되고 탄압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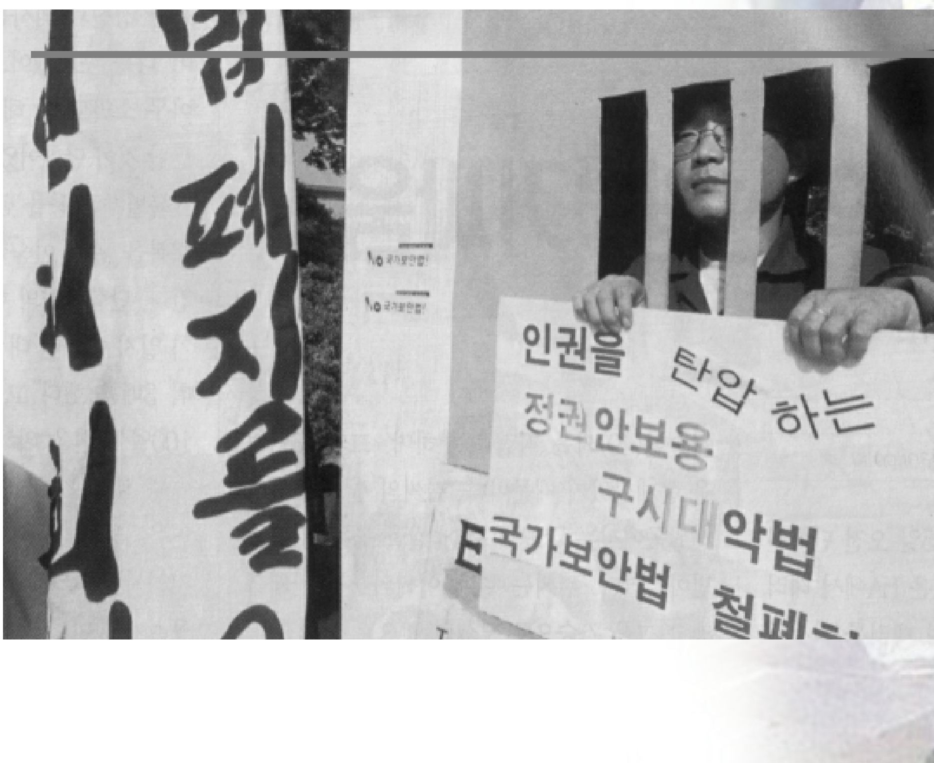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걸어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화해와 협력 통일의 시대로 나가는 민족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반통일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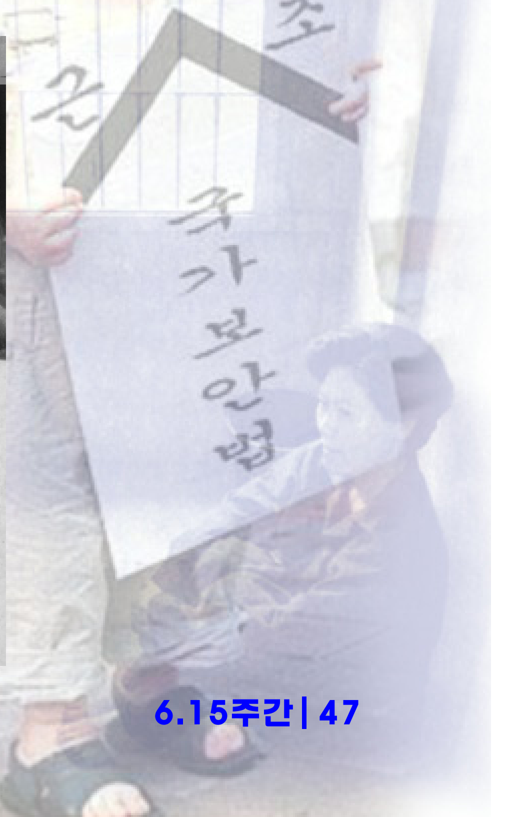
한총련이 주장하는 내용중 일부가 북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하여 그것이 이적이 되고 탄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면,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화해와 협력, 통일의 시대로 전환시킨 6.15남북공동선언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도 없이 북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여 이적으로 몰고, 탄압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약속한 6.15공동선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거 반공반북대결적 냉전의 소산이다.

공안당국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죄없는 충청총련 의장을 불법연행 구속한 것은 화해와 협력 통일을 약속한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용납될 수 없는 반통일 행위이다.

공안당국은 더 이상 시대에 역행하지 말고 박찬영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1년 9월 27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연행한 한총련 대의원을 석방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민족고대 총학생회

최근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공안기관의 한총련 대의원 연행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분노와 더불어 착찹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이 세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 나라의 인권시계가 아직 독재의 시대에서 그 바늘을 멈췄음을 상징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민주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늘도 지속되는 것은 오욕과 불명예의 연속이다.

분단이 통일을 가로막고, 반민주가 민주를 억압하는 것이 순리에 거스르는 역리이듯 지금의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탄압은 비정상적이며 비이성적인 처사이다. 일제치하에서 친일로 애국을 사칭했듯, 오늘날 국가보안법은 무슨 나라의 안위를 위해 적용하는 듯 하나 본질은 극우냉전세력의 자기 보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다른 대의원들, 그리고 9월 21일에 연행된 서총련 산하 동총련 의장 이종필 학우와 충청총련 의장 박찬영 학우는 모두 학우들의 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의 신장,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일로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구시대의 낡은 법제도로 새시대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오늘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이적규정을 들어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것은 훗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반민주 · 반민족 행위의 공소장에 혐의를 더하는 어리석인 행위이다. 역사의 교훈은 모진 탄압은 더 큰 투쟁을 낳고 투쟁의 결과는 곧 탄압의 주동자들에 대한 단죄라는 사실이다. 정권과 공안기관은 더 이상의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한총련 대의원에 내린 수배와 투옥이라는 고난에 대해 사죄 배상하라.

연행한 한총련 대의원을 모두 석방하라
반민주적 이적규정의 법적근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한총련 대의원 연행하는 공안기관 해체하라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34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민족민주전선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지난 9월 22~23일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각지의 전국연합 회원 1300여명이 참석하여 열린 대회에서 전국연합 오종렬상임의장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민족간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입니다. 역사의 새 아침을 보려거든 동지들이여, 강철처럼 굳센 민족민주전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민족민주 전선을 바로 세워 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수 선생님들과 범민련 관계자들 이 참석하였으며, 다음날 회원들과 함께하는 산행이 ***
다음은 선언문과 결의문 전문이다.

선언문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조국과 민중의 하늘같은 부름에 가슴을 열고 몸을 일으켜 한 걸음에 달려온 동지 여러분!
이 땅 그 어둠의 한 가운데에서 찬란히 타오른 위대한 항쟁의 불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갑오농민전쟁입니다. 이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항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선배전사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 고귀하고 강철같은 정신은 4.19 혁명,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민주항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자주 · 민주 · 통일이라는 우리의 거룩한 대강령으로 응집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주 · 민주 · 통일의 대강령은 이 땅 국민들의 가슴에 울려 퍼져, 마침내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으로,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연합은 수난과 영광으로 가득한 조국의 것이고 역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1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 1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누렸고, 환호도 질렀으며, 내부의 어려움으로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자주 · 민주 · 통일의 깃발을 놓지 않고 의연히 그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중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막연한 계획과 구호가 아닌 철저히 과학적이면서 철저히 민중에 근거한 우리의 목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10년의 전망을 바로 세워내고 그를 위한 강고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조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동지들!
미국의 총칼에 갈갈이 찢겨버린 어머니 조국, 그 잘리워진 조국을 하나로 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침략에 산산이 부서진 민중들의 삶, 그 처참한 삶에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에 바쳐야할 신성한 과업은 언제나 우리 가슴을 펄펄 뛰게 합니다. 그 뜨거운 책임감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동지 여러분!
7천만 겨레의 절절한 염원인 조국통일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중의 생존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역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4천5백만 우리 민중의 단결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민중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민족간부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가득찬 민족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력 있는 민족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태산을 움직이는 것은 민중이지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민족간부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민족간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입니다. 역사의 새 아침을 보려거든 동지들이여, 강철처럼 굳센 민족민주전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민족민주전선을 바로 세워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야 할 거룩한 행보 앞에는 결코 좌절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룩해야할 위대한 과업 앞에는 결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이 있기에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이 있기에 기필코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가는 걸음 멈추지 맙시다. 맞잡은 손 결코 놓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 내딛은 그 걸음을 기억합시다.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 힘찬 걸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사대매국의 산을 옮기고 압제와 수탈의 바다를 가르는 동지들의 위대한 행진은 마침내 어둠 속에서 위대한 태양을 보듬어 올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그 날의 영광을 담아내는 축배를 듭시다. 자손 만대에 길이 물려줄 아름다운 대동세상을 향해 우리 다함께 나아갑시다. 동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1년 9월 22일



특별결의문

우리가 기필코 이룩할 위대한 과업,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뜨거운 심장 속에서 박동 치는 조국사랑의 고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비록 우리의 힘이 더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이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7천만 겨레와 4천만 민중의 거룩한 힘과 지혜를 믿기에, 힘차게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광범위하고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세우고, 그에 토대하고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하반기 당면 투쟁을 설정하고, 온 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에 겨레와 역사 앞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분단과 억압의 근원,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기필코 저지한다

10월 18일 고귀한 조국의 땅에 미국의 침략과 수탈의 검은 발톱을 내딛는다. 미국은 조국의 남녘을 강점하고, 북녘에 총칼을 겨누어, 칠천만 겨레에게 분단의 아픔을 주었다. 미국은 전면적인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4천만 민중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전 세계를 향한 군사패권주의와 경제침략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우리 국민과 우리 겨레, 그리고 세계인에게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만을 끝도 없이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 땅을 마음껏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과 겨레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 의지를 힘차게 시위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우려를 함께 모아 보복 전쟁 반대, 군사침략 포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2. 우리는 매국역적 이회창을 우두머리로 한 한나라당과 그 나팔수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사대매국적 민족분열책동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반통일세력들의 행각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죄악 이었다. 민족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왜곡하고 확대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민족 대결을 부추기는 그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에 온 국민을 구름처럼 일으켜 세우려면, 그들의 힘으로 자주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국민을 속이고 민족을 이간하는 반통일 세력의 도발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고립에 초조함을 느껴 갈수록 더욱 극렬한 양상을 보이는 일부 극소수 반통일세력을 온 국민의 힘으로 철저히 제압해 나갈 것이며, 매국역적 이회창을 우두머리로 한 한나라당과 그 어용 나팔수인 조선일보를 역사의 심판대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3. 우리는 12월 1일 전국연합 건설 10주년 기념행사를 1만 애국자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치를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강고하고 폭넓은 민족민주전선도 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족민주정당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이룩할 것이다. 현장을 일구고 지역을 개척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민족과 민중을 위해 헌신할 민족간부이며, 우리가 치켜들어야 할 것은 민족민주전선에 충실히 복무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12월 1일, 우리들의 땀과 눈물, 정성과 사랑으로 1만 대오를 조직하여, 전국연합 10주년 기념행사를 애국의 함성으로, 자주와 통일의 다짐으로 끓어 넘치는 대회로 뜨겁게 치를 것이며, 그 애국 대오와 함께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다.

기자 : 최지민 / 작성일 : 2001-09-28 00:00:25

2001년 9월 22일
민족민주전선 일꾼 전진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발족선언문

시대의 양심은 과연 어느 계층에 선봉적 투쟁으로 이땅의 모든 민중에게 전달되어 왔는가?

일말의 주저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청년학생이었다고.....

우리는 인생의 기나긴 과정에서 순수함으로 똘똘 뭉쳐있고 기백이 살아있는 청춘의 순간을 살고 있다. 내가 서있는 모든 공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실천하는 청년학생으로써의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살았던 청년학생들에게도 적용되었던 법칙인 것이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시대의 양심을 당당하게 선도했던 청년의 기백이 더더욱 광범하게 깊이있게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수많은 투쟁을 진행시켜왔던 각계의 민중이 이제는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우리의 요구를 입체적으로 펼쳐내보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문제의 근본에 대한 인식이 같으며 그 인식은 이 땅에 우방으로써의 충고가 아닌 간섭의 수준을 시작부터 넘어선 강압의 나라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로 모여 대안의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미국의 초국적자본이 펼쳐내는 신자유주의 허울아래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나가고 있다. 농민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몇 번이고 작물을 바꾸어가며 농사를 지어도 미국의 직간접적인 수입개방압력에 너무도 쉽게 수입되어버리는 수입농산물을 바라보며 자식을 버리는 마음으로 논밭을 갈아엎고 있다. 누가 만든 경제위기이던가 경제위기 이후 노점상이 되어 거리로 나온 수많은 국민들은 용역깡패의 욕지거리에 월드컵 때 찾아올 외국관광객을 위한 도시정화정책에 살길을 잃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어떠한가?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기초가 되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휴학으로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이제 익숙하다. 2003년까지의 미국의 교육시장개방압력에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일년의 등록금이 1000만원 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립대학발전계획을 접하며 귀족이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온 민중의 아픔은 어디간데 없다. 이회창을 필두로 한 보수세력들에겐 자신의 집권만이 유일한 관심사이다. 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단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손에 쥐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상승시키고 유지시키는데 훨씬 빠르다고 판단하는 쓰레기 같은 정치모리배들이 지금의 정치가들이다. 사회 모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껏 열심히 투쟁하던 민중이 정치세력으로써 그 세력을 강화하여 민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민중에게 대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시각을 늦출 수 있는 일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너무도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를 건설하려는 근본의 목적이다. 누구나 정치를 이야기하자. 동네의 아주머니들도 썩어빠진 정치권의 객관적 실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주관적 비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자. 모든 학생이 일상의 술자리에서 원칙적 관점으로 정치를 비판하게 하고, 시기시기 투쟁하게 하자. 대안을 이야기하게 하자. 이것을 학생위원회가 슈퍼맨이 되어 모조리 담보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시대의 양심에 언제나 앞자락에 있었던 청년학생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성인들이라고 이야기되는 대학생들이 이러한 진보적인 고민과 실천으로 정치세력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격동의 시간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주민주통일의 포문이 거대한 파도로 7천만 겨레에 밀어닥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다리고만 있는다면 그 파도는 모순과 오욕을 모조리 쓸어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고 다시금 준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도적으로 정연하게 준비해야만이 될 것이다. 일어서자!! 미국의 지랄같은 발악이 나의 생활에 너무도 밀접함을 자각하고 발악을 한숨에 꺽어버릴 대안을 준비하자. 그 길에 작으나마 단국교정안에서 진보를 책임성 있게 이야기할 즐거운 의무를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는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해 2001년 9월 27일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돼야

조연택 / 구국전선 455호 (주체90년 10월 1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한반도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문제는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고착된 문제≫라고 하면서 철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고 꾀하고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존재를 법적으로 담보한다는 ≪상호방위조약≫은 어떤 조약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에 체결되고 1954년 11월에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서가 교환되어 발효된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체결되는 조약과는 달리 종주국과 식민지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6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이 조약의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상호 합의한대로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조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도 이남은 미군을 배치시킬 의무만을 지고 미국은 권리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임의의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2조 7항과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원칙의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는 제1조 2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완전히 예속적인 조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조약 제6조에는 또한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밝혀져 있다.

결국 이 불평등조약은 주한미군의 무기한 주둔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사기지의 설치를 기한부로 하여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

실례로 필리핀은 1947년 미국과 30여개의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99년간이라는 오랜 기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형식상이나마 사용기간을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이남강점은 이 조약 제6조에 의해 무기한인 것이다.

이것은 이 조약이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증해 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러한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

오늘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주한미군철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주한미군의 존재를 종식시키는 것은 민족사의 가장 엄숙한 요청이고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비롯한 반미자주화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민족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무엇을 노리는가

김대룡 / 구국전선 455호 (주체90년 10월 1일)



최근 일본방위청이 2005년까지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그를 통해 방위를 기본으로 하던 냉전시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과 북방중시에 따른 현재의 자위대 부대배비 및 편성체제를 재검토하여 남방전개능력을 중시한 부대재배비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지막단계에서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은 1976년에 ≪방위계획대강≫을 결정하고 1995년까지 8차례에 걸쳐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실현하여 자위대무력을 질량적으로 급격히 강화했다.

이 기간에 ≪방위계획대강≫에 예견된 무력증강의 한도를 넘어섰으며 1993년 초에는 군사비지출면에서 독일, 프랑스를 압도하고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계속하여 1995년 11월부터 2005년까지의 10년을 목표로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을 채택했다.

이 계획실현을 위해 일본은 1996~2000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24조 2천3백억엔을 지출했고 2001~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25조 1천6백억엔을 지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 계획실현을 통해 자위대무력을 정보기술화하고 게릴라나 특수부대, 생물 및 화학무기에 의한 공격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며 무력의 체제개편을 가속화함으로써 자위대의 합리화, 효률화, 집약화를 완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엄중한 것은 대강의 별표안이란데서 ≪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불안정의 첫째요인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것은 한반도유사시를 목표로 한 것이다.

지금 일본은 한반도와 면한 일본서부지역에서 전략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을 재검토하여 북쪽으로부터 남부섬들인 큐슈와 오키나와쪽으로 무력을 집중배치하려고 꾀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필요한 경우 무력을 한반도 쪽으로 신속히 이동, 전개시키기 위한 항공수송대강화와 통신체계수립에 힘을 넣고 있다.

현실은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이 일본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한반도를 겨냥한 침략계획서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정말 좋은 투쟁이다

김윤식 / 한민전 평양대표부 시사레포트 주체90년(2001년) 9호



최근 한총련에서는 6.15공동선언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민심과 대세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남북간 냉전기류조성에 광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9월 7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나라당사앞에서 모임을 갖고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을 발족시켰다.

대학생감시단은 이회창바로보기운동과 이회창에 대한 제보전화받기운동 등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이회창의 반통일적, 반민족적행위들을 낱낱이 장악하여 만천하에 고발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동강난 강토를 하나로 이으려는 애국충정의 발현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은 물론 세상사람들 모두가 지지환영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가장 못되게 반대하는 역적중의 역적이다.

이회창은 처음부터 6.15공동선언을 못마땅해하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문제의 자주적해결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느니,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은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느니 뭐니하고 이 선언의 기본정신과 조국통일방도를 전면부정했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라고 비방하면서 각방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른바 ≪통일대축전파문≫을 일으킨데서 알 수 있듯이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장 악질적으로 가로막는 자로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일신의 치부와 권세욕에만 환장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당초 이회창은 친일가계의 후손으로서 일찍부터 애국을 교살하는 범죄의 길에서 교형리로 악명을 떨쳤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한 죄행과 민족반역자로서의 정체를 드러낸 것으로 하여 이회창은 이미 국민적 원한과 증오의 표적으로 되었다.

이번에 한총련의 대학생들이 반이회창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바로 국민대중의 열망과 지향을 대변한 것으로서 그것은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한총련의 애국의지와 용맹을 내외에 과시한 의로운 장거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길은 이회창과 같은 분열세력을 제거하는데 있다.

더욱이 6.15남북공동선언이 이행단계에 있는 오늘날은 민족 구성원 개개인이 남북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애국의 길은 간고하지만 그 길에 영광과 축복이 있다.

온 겨레의 가슴 속에 자랑으로 깊이 새겨져 있는 강철의 애국 대오 한총련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반이회창투쟁에서 불퇴전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한총련대학생들의 반이회창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연대투쟁의 불길을 높여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통일조국의 새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위인칭송



지금 우리 민중속에서는 방러기간 푸틴대통령의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지극한 예우, 그리고 장군님의 그 부드러운 매혹적인 미소와 인민복차림의 멋진 모습속에 비춰지는 외교활동, 아직도 경탄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자국에 새겨져 있는 노정을 따르시며 걸으신 그 충정과 위인상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세인들이 더더욱 칭송하는 거겠죠. 김현규씨 모시고 좀더 자세한 애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은 온 겨레를 기쁨과 감격으로 흥성거리게 할뿐 아니라 세계적판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구촌의 진보적 민중들은 무엇보다도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자국이 새겨져 있는 노정을 따르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수놓아 가신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과 위대한 업적을 경탄에 넘쳐 높이 칭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엔 그와 관련한 애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의 뜻깊은 첫해에 러시아를 방문하시면서 20세기의 모스크바에 거룩한 자국을 아로새기시어 두 나라 민중들사이에 친선의 역사를 열어놓으셨고 공화국을 빛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칠천만겨레는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면에 햇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상봉하시고 회담하시는 모습과 그분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중앙우주비행조종센타를 참관하시는 모습, 그리고 장군님께서 러시아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는 모습을 우러를 때 저도 모르게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대외활동을 추억했고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환영해서 푸틴대통령은 지난 8월 4일 저녁 크렘린대궁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는데요. 푸틴대통령은 이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1984년과 1996년에 바로 이 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님을 환영하는 연회들이 진행된 것은 상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는 러시아측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회자 : 러시아신문 ≪글라스노스찌≫**책임주필도 매우 뜻깊은 말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규 : 네, 그래요. 책임주필은 이번에 러시아땅에 오신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세가지로 보았다고 하면서 이 첫째가 **김정일**장군님은 숭고한 도덕을 최상의 수준에서 체현하신 분이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선대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먼길을 오셨다고,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러시아땅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업적을 역사에 빛내이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깊은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 : 그 말의 참뜻을 깊이 새길수록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경모의 정을 안고 주석님께서 모스크바에 불멸의 자국을 남기신 나날을 더욱더 감동깊게 추억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1984년 5월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러시아를 방문하시면서 열광적인 대환영을 받으셨죠.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주체73 (198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주석님께서 타신 특별열차가 모스크바의 한 역에 도착했을때 이 나라 내각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고위간부들이 성대한 환영의식으로 **김일성**주석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환영일색으로 단장한 역전광장과 모스크바시 연도에 수많은 군중들이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나와 꽃다발과 깃발을 흔들며 우렁찬 환호를 보냈는데요. 참으로 감동적인 환대였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때 모스크바의 거리거리에 차넘쳤던 환영의 열정은 **김일성**주석님께서 1930년대에 첫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을 무장으로 옹위해서 투쟁하신 그때로부터 간직해온 주석님에 대한 그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의 표시였다고 생각되는데요.

김현규 : 주체38 (1949)년 **김일성**주석님께서 소련을 공식방문하셨을때의 역사적사실은 더욱더 우리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고 봅니다. 그때 **김일성**주석님을 위해서 성대한 연회를 차린 스딸린은 연세가 많았지만 자신이 직접 축대사를 썼는데요.

그는 축대사에서 ≪**김일성**주석님은 동방에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소련을 피로써 도와주고 무장으로 옹위해주신 참다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이시며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오늘과 같이 평화적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할수 있는건 **김일성**주석님과 같은 위대한 혁명가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열렬한 박수로 **김일성**주석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연회장은 폭풍같은 박수갈채로 떠나갈듯 했답니다. 정말 전례없는 일이였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항간에서는 스딸린이 **김일성**주석님께 세계자주화위업을 부탁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김현규 : 그건 사실입니다. 지난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스딸린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스딸린과 오랜 시간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의 자주화에 관해 의논하셨는데요, 스딸린은 **김일성**주석님께 앞으로 조선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개발도상나라들을 잘 도와주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할데 관해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부탁은 스딸린이 생애 마지막시기 주석님께 세계자주화위업을 부탁한 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회자 : 네,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위인을 모신 민족적자긍심이 가슴 뿌듯이 안겨오는데요.

김현규 : 그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나갔으나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모스크바시민들은 주체73 (1984)년 5월의 그날에도 주석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그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당시 당수반의 뜨거운 영접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여러 나라 신문들이 널리 소개했었습니다. 신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소련측의 영접은 외국수반에 대한 최상급의 환영을 보여주었다≫, ≪최고수뇌진이 마중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사회자 : 숭엄한 감정을 어찌할수 없군요. 어떻습니까.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오늘 러시아민중들은 **김정일**장군님을 그때처럼 열렬히 칭송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과학원의 한 일군은 장군님을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은** 푸틴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김정일**장군님에 대해 특별히 환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놀라와하고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시며 초대국인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담력으로 정치를 펴나가시는 세계적인 영도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러시아민중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돌이켜보면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셔서 조국을 광복하시고 국가수반으로써 외국방문의 길에 나서시였고 그 길에서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이셨으며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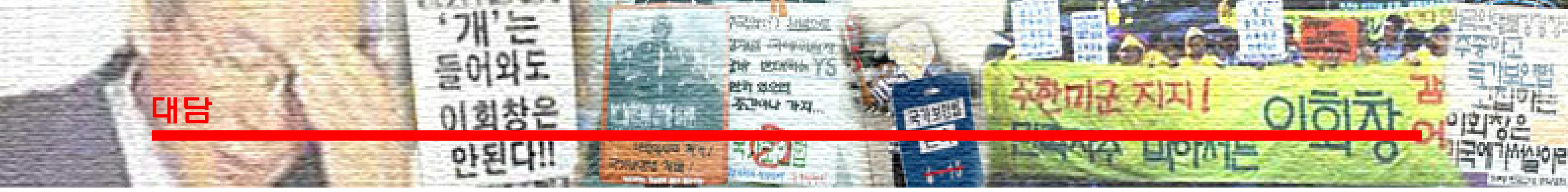
김현규 : 네, 그렇죠. 그런가하면 한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숴버리시고 이북민중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면서 21세기의 첫해 러시아방문의 길에 나서시어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고 세계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셨던 겁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신 우리 칠천만겨레의 민족적자긍심을 더욱더 북돋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그래요. 칠천만겨레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줄 압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모든 것이 여물어가고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는 단풍잎보다 더 붉디 붉은 충정의 한마음으로 통일의 장군따라 통일의 열매를 무르익혀야겠죠.



이회창은 왜 남북공동선언 시비하나

6.15남북공동선언은 발표되는 순간부터 우리 겨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과 그 패당들 만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시비질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럼 이회창이 왜 6.15공동선언을 그처럼 악을 쓰며 헐뜯고 반대하고 있는가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유진명씨 모시고 알아보기로 하죠.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에는 민족자주통일의 새 역사가 창조되고 있는데요. 칠천만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악랄하게 시비중상하고 있어서 내외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길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유진명 : 현시기에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건 6.15공동선언이 남과 북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이고 새 세기 자주통일의 이정표이기 때문이예요.

최근 발표된 북러모스크바선언을 통해서도 6.15남북공동선언의 당위성과 활력이 다시금 확인됐고 8.15를 계기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서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기치로 들고 나가려는 겨레의 의지를 만방에 과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인류가 6.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그것이 철저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6.15공동선언을 악랄하게 시비질하고 있어요.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이회창은 기회있을 때마다 6.15공동선언에 대해 시비질하고 깍아내리기 위해서 별의별 험담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유진명 : 애당초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달가와하지 않는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것을 시비질하며 반대해 나섰는데요. 그는 6.15공동선언의 매 조항, 조항을 무턱대고 반대했어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조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철수불가와 미군영구주둔론을 떠들었고 연방연합에 관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연방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제창했어요. 또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문제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반대했죠.

사회자 : 지난 군부독재시기부터 민족의 영구분열과 남북대결책동에 광분한 이회창이고 보면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반북 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까지 연공연북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때에 이회창이 계속 낡은 대결논리를 펴고 있는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건 무엇때문인가하는 겁니다.

유진명 : 그건 무엇보다 먼저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남북대결에 환장한 이회창의 반통일적이고 파쇼적인 체질과 관련되는데요. 이회창이 지난 군부독재정권시기에 그저 법관노릇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독재정권의 파수꾼이 돼서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한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파쇼악법에 걸어 처형하는 악행만을 일삼았어요. 그 많은 사례들을 일일히 다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진보적 언론인이였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씨를 사형에 처하게 한 것도 이회창이고 광주학살의 주범인 미국을 반대하면서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질러 우리 민중의 굳센 반미투쟁의 의지를 보여준 김춘양, 문부식 씨를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형을 판결하도록 한 것도 이회창이예요. 그가 법관의 감투를 쓰고 얼마나 많은 통일민주인사들을 사형을 비롯한 극형에 처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런 사실을 **미처 **없다고 ***잘 알 수 있어요. 이회창은 바로 이런 자이기 때문에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예찬론을 들고 나오며 6.15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는 망언들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거죠.

사회자 : 그것만 봐도 이회창은 분열광이고 민족반역자라는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을 시비질하고 있는건 또한 그가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추구하면서 대권욕을 이뤄보려는데도 있지 않을까요?

유진명 : 옳습니다. 사실 6.15공동선언이 실천으로 옮겨져 민족적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지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등 통일분위기가 높아가면 갈수록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은 대권은 고사하고 이 땅에 설 자리마저 없게 돼요. 민족을 반대하고 통일을 반대하며 사대매국에 환장해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크니까요. 때문에 이회창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어떻게 해서든 대권욕을 이뤄보기 위해 민족분열과 반통일책동에 그처럼 광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6.15공동선언을 악랄하게 시비질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회자 :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반북대결을 고취하며 냉전논리만을 펴는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한반도정세는 더욱 긴장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각계 민중은 통일의 걸림돌인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이회창은 왜 남북공동선언 시비하나**≫ 유진명씨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이회창역적과 그 패당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시비하고 그 이행을 방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대하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겁니다. 통일대하는 이회창과 같은 한줌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를 거세찬 격류에 휘감에 퇴적층에 묻어버리고 말 겁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성명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에 들어가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이름과는 다르게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보호를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친일파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에 냉전질서를 만들어 가는 시점에 만들어진 법률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냉전질서가 해소된 마당에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은 없다. 그럼에도 방북단 구속과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극우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낡아빠진 안보논리 속에 갇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잘못된 의식이 상당히 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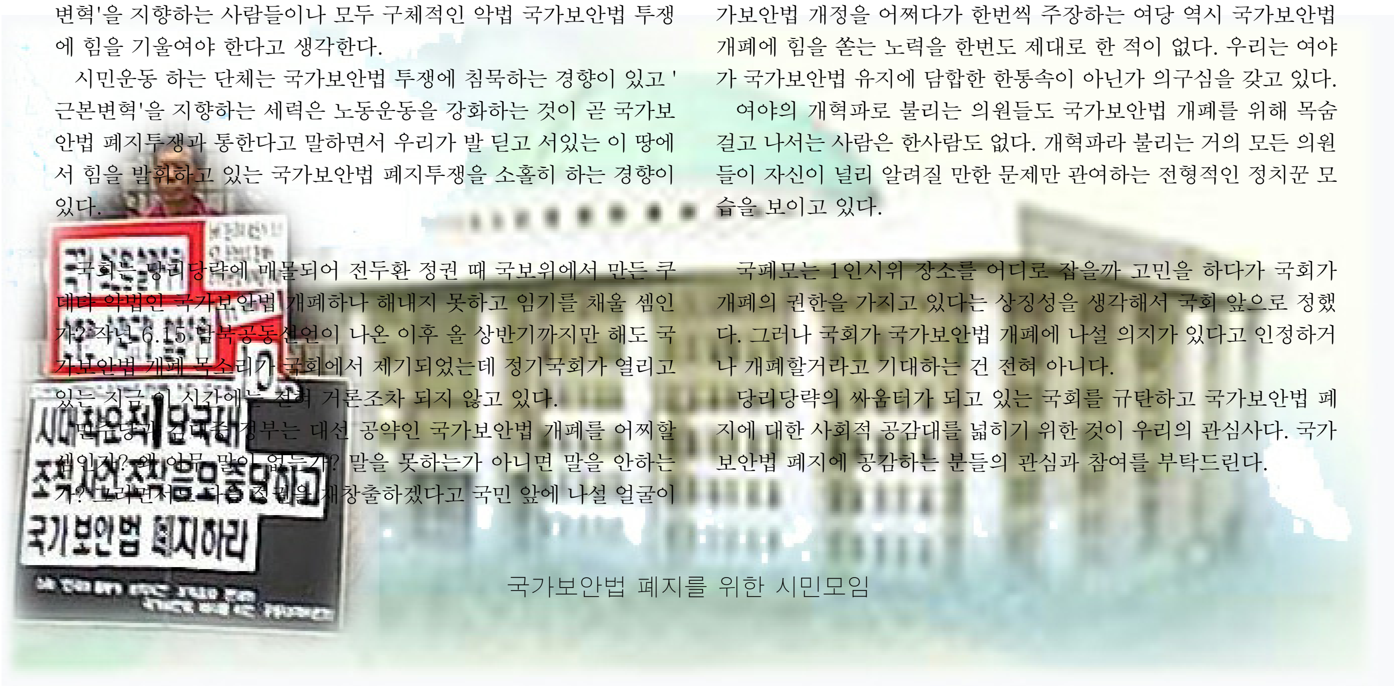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건재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실천이 부족한데 있다. 국가보안법이 무슨 법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국가보안법의 전문을 한번 제대로 읽지 않은 활동가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역사 한가지만 보아도 이 법이 어떤 성격의 법률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정해서 정권유지의 도구로 써먹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은 전두환 정권 때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한 것이다. 반공법을 폐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반공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약간의 수사로 포장하여 민자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실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나누어서 실천에 나서야한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구체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투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 하는 단체는 국가보안법 투쟁에 침묵하는 경향이 있고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은 노동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통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전두환 정권 때 국보위에서 만든 쿠데타 악법인 국가보안법 개폐하나 해내지 못하고 임기를 채울 셈인가?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개폐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었는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김대중 정부는 대선 공약인 국가보안법 개폐를 어찌할 셈인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말을 못하는가 아니면 말을 안하는가? 그러면서도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국민 앞에 나설 얼굴이 있는가? 이른바 민주당 개혁파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 자리를 빌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엇그제, 정확하게는 미국 테러사건이 났을 때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주장까지 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한나라당 안에 이른바 개혁파라 불리는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했었는데 미국의 테러사건이 터지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우선 한나라당 대변인의 성명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임동원 장관을 자르는데 찬성표를 던질 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개혁적이지도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개혁적인 체 하는 정치인들은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른바 한나라당 개혁파의원들에게도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 국회는 없으면 좋을 존재이다. 하는 일이 전혀 없고 반동적인 구실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로 구분하거나 인물 개개인으로 구분해 볼 때 차별성이라면 차별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서로 잘났다고 키 재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한 여야는 본질적으로 차별성이 없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어쩌다가 한번씩 주장하는 여당 역시 국가보안법 개폐에 힘을 쏟는 노력을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여야가 국가보안법 유지에 담합한 한통속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여야의 개혁파로 불리는 의원들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해 목숨걸고 나서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개혁파라 불리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자신이 널리 알려질 만한 문제만 관여하는 전형적인 정치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폐모는 1인시위 장소를 어디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국회가 개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을 생각해서 국회 앞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개폐할거라고 기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

당리당략의 싸움터가 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감하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1인 시위 일정과 주장

아래 일인시위 일정과 주장을 싣습니다. 누구나 1인시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10월 4일(목요일) 부터 12월 말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소: 국회정문 앞
시간: 낮 12시부터 1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참여하는 사람: 회원과 참여를 원하는 시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와 우리의 요구 사항 여섯 가지를 내걸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힘있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한다. 곧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2.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
3.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다.
4. 6.15공동선언의 당사자인 북한을 적으로 본다.
5. 전시에 만들어진 냉전 법률이다.
6.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개정되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간적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 통일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3.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4. 국회는 당리당략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5. 한총련,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6. 인권침해 악법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2001. 10.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화 744-7988 팩스 745-4988
http://www.antikukbo.net
antikukbo@antikukbo.net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36 세화빌딩 5층



휘날려라 통일기여

-이기웅씨의 시-

아리랑의 노래속에 단일기가 오른다
맑고 푸른 하늘높이 온겨레의 염원을 새긴 우리의 통일기가 펄럭인다
눈부신 8월의 햇빛아래 통일성도 평양에서
삼천리를 감아싣고 나래치는 통일단일기여

금강산너머 서울서도 보이고
이웃땅 멀리서도 심장에 새겨진 민족의 깃발
겨레의 통일기

너는 하나된 조국의 상징
너는 하나된 민족의 표대
조국통일대행진의 진두에서
힘차게 나부끼는 자주통일의 의지
민족대단결의 깃발이여

통일태양 안겨준 6.15공동선언실현에로
남과 북, 해외를 부르며 세차게 휘날리는
투쟁의 기폭

네 밑에 모이면 혈맥은 이어져
마음도 뜻도 하나로 고동치고
너를 두르고 나아가면 발걸음도 의지도 하나되어
칠천만은 장엄한 통일대하 이루거니

그래서 나는 너를 통일기라 부른다
펄럭이라 통일기여 더욱 높이 기세차게 휘날려라
순간도 멈춤이 없이

통일만세 진감할 영광찬 그날안고
통일삼천리는 이미 네 기폭에 새겨졌거니
오! 민족의 내일을 열어갈
투쟁의 깃발이여
통일된 광장에 높이 휘날릴
겨레의 소중한 통일기여

주체 90, 9월 23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중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시범문답식 학습결연을 참관하셨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의 박모교사가 **김정일**장군님의 후대사랑의 정사를 끝없이 존경했습니다.

전국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타앞에서 정기간행물법개정을 위한 전국운동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발대식에서 언론사경영의 투명성확보와 편집권독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통일연대소속 11개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 광화문 시민마당에서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에 반대하는 연대집회를 가졌습니다.

언론인들이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였던 이회창을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이회창이 언론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 당시 조용수사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교형리이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을뿐아니라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을 정부의 외곽단체라고 떠든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민족일보를 폐간시키고 그 사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이회창이 언론자유를 운운한 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일이다. 이회창은 언론자유에 대해 떠들기 전에 민족일보를 탄압한 진상에 대해 밝히고 국민앞에 사죄해야한다. 또 일족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정계에서 퇴진해야한다.≫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이회창이 조선일보를 비호두둔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이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대변지나 다름없는 조선일보를 비호하자는데 있다. 전국민으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를 두둔하고 나선 이회창의 정체가 의심된다. 친일매문지였던 조선일보를 비호하는 것은 친일파만이 할수 있다. 또 조선일보가 지금 남북대결을 선동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를 사수하겠다는 것은 이회창 자신이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민족일보탄압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말살에 앞장섰던 이회창을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

한편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부당하게 탄압당한 민족일보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담당판사였던 이회창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지역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1일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창원대 총학생회장 성모씨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서거 52주기에 즈음해 22일 아침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한민전≫평양대표부 성원들, 해외동포들이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모신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8일 페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에서 발행했습니다.

지난 18일 벨라루씨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해 벨라루씨 국가체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비난했습니다.

주체 90, 9월 24일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종교인 이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통일의 운동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가칭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준비위원장인 이장희 한국외대교수를 비롯해 강만길 상지대총장, 백낙중 서울대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각계에서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이회창은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말하면 이땅을 불법강점하고 있는 침략군이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뒷받침하는 세력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고 자주권을 되찾으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미군철수를 반대할뿐아니라 이땅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시험장으로 내맡기려하는 것은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적인 대죄이다. 이회창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미국에 잘 보여 대통령감투를 써보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망상이다. 민의에 역행하는 친미숭미분자 이회창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정계에서 퇴진해야한다.≫

주한미군범죄근절대책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이회창일파를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때문에 우리 국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가. 미군유지비라는 미명아래 약탈당하는 혈세만도 해마다 수십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양키들이 이땅을 제 세상인양 활개치며 전국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살인과 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야수같은 미국놈들에게 정절을 짓밟히고 무참하게 살해됐는가. 미군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분노는 하늘에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미군철수를 반대하고 있으니 그의 몸에는 양키의 피만이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회창은 친일분자의 후예일뿐아니라 철저한 친미분자이다. 이런 민족반역자가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활개치도록 방치해 둔 것은 정말 국민의 수치이다. 전국민이 합세해서 이회창을 제거해버려야한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한 관계자는 미군때문에 농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엄청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은 기지사용료도 내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농경지와 산을 군사기지로, 폭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과 독성물질로 해서 땅과 강하천이 오염되고 있다. 미친듯이 벌이는 전쟁연습으로 인해 심어놓은 곡식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미군때문에 이땅은 말그대로 황폐화되고 있다. 미군을 철수시켜야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미군을 비호하며 철수를 반대하고 나섰으니 쓸개빠진 자가 아닌지 묻고 싶다. 친미사대반통일역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조속히 퇴출시켜야한다.≫

한나라당의원들이 같은 당 주진우의원의 **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할수 있도록 ***을 통해 압력을 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로 ****어려워진 자민련이 9월부터 사무처직원들의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자 당지도부를 향한 원망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김종필명예총재까지 나서 격려했지만 별효과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일고 있습니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아래 금수산기념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각계각층 민중과 해외동포, 외국인들의 수는 500만 1,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이남과 해외에서 2만 9,300여명의 전사들이 3만 700여명의 외국의 인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충심으로 축원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3일 이온 싸쑤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루마니아사회주의노동당대표단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53돌에 즈음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된 경축집회에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18일 일본해상 막료간부 막료장이 기자회견에서 해상 자위대가 유사시법에 따라 미군의 병참지원을 제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떠벌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보복공격작전을 구실로 범죄적인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단계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체 90, 9월 25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9월 23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메기공장과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컴퓨터애호가들의 모임인 하나컴퓨터에서 최근 녹화물 ≪통일태양 삼천리를 비춘다≫를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이 녹화물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각계각층 민중들속에 널리 파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200여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서울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테러사태가 전쟁으로 확대돼서는 안된다며 국제적인 반전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진우의원이 수산시장을 인수할 경우 한나라당에 1차로 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시중의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고 일부에서 야당이 이번 노량진수산시장인수를 통해 이회창총재의 대선자금을 축적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과 김종필은 24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른바 민생문제회복을 운운한뒤 퍼주기식 대북지원정책은 국민의 통일열망을 분열시킬수 있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배척받고 고립상태에 빠진 전 문민독재자 김영삼과 김종필간의 회동을 지켜본 국민들은 조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족시보≫ 11일자에 따르면 ≪남측대표단을 석방하라,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기념행사≫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이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주최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가나가와 등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53돌에 즈음해 몰드바대통령, 피에라레언대통령, 칠레대통령, 마르코국왕, 말레이시아수상, 부르나이수상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4일 캄보디아 공보성대표단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인도정부가 이북이 자연재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지난 시기 식량 3,000톤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지원물자들을 기증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많은 영농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우간다준비위원회결성모임이 12일 캄팔라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53돌에 즈음해 리비아의 차즈레지역과 아지지야지역에서는 기념집회와 영화감상회가,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도미니카준비위원회≫와 ≪아르메니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연계 및 협조협회≫에서는 친선모임이, 콩고의 브라자빌에서는 음악축전이 4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19일 쿠바정부가 최근 미국의 주요 정객들과 관리들속에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심상치 않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일 미영전투기들이 이라크의 남부지역 영공을 침범해 민간시설들을 공습했습니다.

주체 90, 9월 26일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셨다는 소식에 접한 전교조소속의 박모교사가 동료들에게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국사에 그처럼 바쁘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번에 이북의 명문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시어 민족교육발전의 명안들을 제시하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셨다니 참으로 격정을 금할수 없다. 지금 이땅의 교육풍토는 말이 아니다. 한마디로 얼이 없고 목표가 없는 교육이다. 노없는 쪽배와 같다. 그러나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교육사업을 민족의 흥망성쇄와 직결되는 근본문제로 여기시고 그 발전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정말 후대교육을 국사중의 국사로 놓으시고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치시는 분은 오직 **김정일**영도자님뿐이시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슴 뜨거워진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은 하루빨리 제거돼야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이 시기상조론을 떠들면서 반민족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는 우리 민중뿐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얼마나 많은 애국인사들이 처형, 학살되었는가.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온 겨레의 일치한 통일열망을 탄압하고 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악명떨치고 있다.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시기상조론을 떠들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반통일분자인 그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지체없이 제거해야한다.≫

국방부는 25일 16조 3천억원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전력을 증강하기로 한 것은 북침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려는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족시보≫에 의하면 미군이 6.25전쟁당시 광주 무등

산과 전라남도 화순군일대에서 세균전을 감행하여 수백명의 주민들을 학살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분격을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조총련의 홍상수프로권투선수가 24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1만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세계 권투이사회 WBC의 수퍼플라이급 왕자방위전을 진행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5일 몽골 외무성대표단, 이북 주재 러시아연방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와 제368군부대,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의 염소목장과 토끼목장을 시찰하신 소식을 지난 17일 기니 라디오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중국 ≪신화통신≫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53돌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들이 글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강타한 테러는 이스라엘이 자국에 대한 국제적비난여론을 불식시키기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체 90, 9월 27일

국민의 3분의 2가 미국의 보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하루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80명을 상대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 전투병파병에 대해서 응답자 10명중 7명이 반대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의견이 높았습니다.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행사가 전체미군범죄의 7%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미군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변변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의 굴욕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비용이 매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도전해 해마다 막대한 자금이 침략자들에게 지원되는 한심한 현실에 국민들이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이회창은 타도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시비질하며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남북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데 대해서 적화통일에 공조하는 결과를 빚을수 있다느니 뭐니하며 승공통일을 해야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유독 이회창일당만이 승공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민족반역 행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반통일분자는 마땅히 정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

또 시민단체 인사 최모씨는 이회창은 통일의 도움이 되는 것은 한사코 반대하는 반통일분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퍼주기니 상호주의니 뭐니하며 대북지원과 대북투자를 반대할뿐아니라 심지어 인도주의적문제인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도 반대하고 있다. 또 북을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북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인물은 문제의 인물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회창은 정말 지독한 반통일분자이다. 이런 민족반역아가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자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다. 이회창이 대통령감투를 쓴다면 전쟁이 터지든가 무슨 변이 날 것이다. 통일을 반대하고 재앙을 불러오려는 이회창일당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제20차 윤이상음악회가 26일 모란봉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여기에는 강능수문화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예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또 윤이상선생의 부인 이수자씨와 그의 딸,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강능수문화상은 개막연설에서 지난 기간 윤이상음악회가 거둔 성과는 윤이상선생을 변함없이 민족의 재능있는 음악가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와 크나큰 사랑, 은덕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세기에도 **김정일**영도자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윤이상음악회가 명실공히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민족공동의 음악축전으로 강화발전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제20차 윤이상음악회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제1일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무대에는 우리 민족이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된 삼천리 조국땅에서 융성번영을 이룩하리라는 것을 격조높이 노래한 윤이상작곡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와 스메따나작곡 교향시 ≪나의 조국≫ 등의 작품들이 올랐습니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이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과 상봉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루마니아사회주의노동당 대표단과 중국인민해방군 천선참관단, 캄보디아왕국 공보성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53돌에 즈음해 아르메니아대통령, 우크라이나대통령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의 요지를 이집트신문 ≪알 시아시≫ 지난 23일자가 게재했습니다.

민주콩고와 기니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하여 쓴 도서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이북식 사회주의의 비결≫, ≪꽃다발을 드립니다≫를 발행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56돌에 즈음해 지난 20일 페루 트루헬로우와 우간다 캄팔라시 문화회관에서 이북도서 및 사진전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9월 28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군사평론가인 이모씨가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며칠전 뜻을 함께 하는 동료친구들과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미국이 조건부없는 북미회담을 제기해 나서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강경책을 쓰면서 북을 압살해보려던 부시행정부가 끈질기게 조건부없는 북미회담을 제기해나선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앞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유일초대강국이라 호언하는 미국이 기가 꺾어 북에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 그지없다. 정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을 모시어 민족의 존엄이 빛남을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된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반해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대며 국민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한총련과 범민련남측본부를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안법위반혐의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한총련대의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한 대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 6월 한양대학교에서 있은 9기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하는 등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탈퇴를 거부한 서울지역 대의원 10명에게 검거령을 내렸습니다.
또 한총련대의원으로 활동한 순천향대학교 총학생회장 곽상욱씨와 충남대학교 경상대 학생회장 박경철씨,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장 김영배씨, 그리고 창원대 총학생회장, 서원대 총학생회장 등 수많은 학생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했습니다.
이같은 탄압으로 인해 지금 한총련대의원들과 핵심성원 600여명이 구속되거나 수배당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안당국은 방북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 등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들까지 탄압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이같은 탄압행위는 통일의 앞길에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안당국의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뉴욕코리아 타임즈≫는 ***교수가 쓴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는 이남당국이 서울민주노동자회의를 이적단체로 몰아대며 탄압한데 대해 쓴 것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7일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 몽골 외무성 대표단, 캄보디아왕국공보성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27일 제20차 윤이상음악회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주체 90, 9월 29일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개신교 20여개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앞 광장에서 신문개혁기독교연대발대식을 갖고 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조선일보 등 족벌수구언론을 개혁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의 지하에 이어 기지외곽의 지하에서도 기름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월 24일까지 미군부대 담장외곽 6개지점과 녹사평역 기름유출지점 인근 2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에서 다목적관정을 뚫어 지하수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녹사평역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부대담장외곽의 1개 관정에서 기름성분이 발견됐다고 9월 27일 밝혔습니다.
시관계자는 나머지 7개 관정에서도 기름냄새가 나는 곳도 있으나 지하수위가 안정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8개 관정의 지하수위가 안정된 다음 유류성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용산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기지주변의 땅과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미군기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나라당 주진우의원의 노량진수산시장인수 외압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정치권력을 이용해 수산시장을 인수하려고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회창을 정계에서 퇴출해야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이모씨는 이회창은 대통령감이 못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차기대권을 꿈꾸고 있는데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치철학도 없고 대통령으로써 갖추어야할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겼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회창은 또 철저한 친미친일분자이다. 그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문제해결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면서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꼽는다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날수 없다. 또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에 항변한마디 안하는 자를 대권의 자리에 앉힌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이중식민지로 전락할수 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지금 사회에서 반이회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이회창은 스스로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통일운동에 몸담고 있는 김모씨는 만약 이회창이 대권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갈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반공분자, 승공통일론자이다. 그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인물이 대통령감투를 쓴다면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가 냉전시대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침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회창에게 대권을 넘겨주었다가는 우리 민족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회창을 정계에서 퇴출해야한다.≫

민주당 전용학대변인은 일본 어업지도선이 조업중인 한국어선 ≪상진호≫를 한국 동해까지 뒤쫓아와서 침몰시킨 것은 적대국사이에나 있을수 있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에서는 일본의 이같은 횡포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일본이 최근 대형운반로켓 ≪에이취-2에이≫발사시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9월 28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역사왜곡책동과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광분하던 일본당국이 이번에 대형운반로켓발사시험을 진행한 것은 ≪세계일류급의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진 ≪지배자≫로 등장해 아시아민중들의 머리위에 군림하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제반 사실은 일본당국이 떠들어대는 이른바 북의 ≪위협≫이란 것이 저들의 군국화, 핵무장화를 가리우기 위한 한갓 허울에 불과 한 것임을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일본당국은 인공위성발사를 중지하고 있는 북의 평화애호적인 입장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